

봄이야기

2018. 통권 212호

E D U C A T I O N G Y E O N G N A M

교육
경남



- ✓ 초 대 석 좌담 | 학교는 행복한가?
- ✓ 특 집 새내기교사의 2018 행복맛이 준비
- ✓ 특별기획 민주시민교육 우리학교는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www.gerii.go.kr

사월 숲길은

사월 숲길은
봄나들이 마친 진달래
살포시 날개 접는 길

터질듯 말듯 붉은 철쭉
온종일 애태우는 길이다.

사월 숲길은
이름 모를 풀꽃들 별 되어 반짝이는 길

산벚나무 붉은 순
늦은 봄길 툭 툭 쫓아
재촉하는 길이다.

사월 숲길은
연초록 이파리들 손잡고
와 와
함께 오르는 길

바위틈 제비꽃
가만 가만
속삭이고픈 길이다.

사월 숲길은
다람쥐 흘린 상수리
햇볕에 또르륵
깨어나는 길

작은 바위 햇살 아래
한나절
쉬어가고 싶은 길이다.



—
김민성
영천초등학교 교감 · 시인
sseal@hanmail.net

Contents



002

여는 시

사월 숲길은 | 김민성

008

권두언

민주시민교육 :
개인이 먼저냐, 공공이 먼저냐? | 황선준

012

교육경남 초대석 | 좌담

학교는 행복한가? | 오인태

022

경남교육의 창

바칼로레아의 꿈 | 송승환

026

초대논단

나의 마드리드 미술기행 | 백승종

036

| 특집 | 새내기교사의 2018 행복맞이 준비

배움으로 '미소지다(美-疏-智-多)' | 구현숙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 정혜윤

관계로 맺어진 신뢰, 배움을 통한 행복 | 홍현화

존중 · 소통 · 협력 · 배움의 가치 담아 | 윤나라





봄 이야기

2018. 통권 212호

EDUCATION GYEONGNAM

060

| 특별기획 | 민주시민교육 우리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개선 방안 | 김영희
 학급규칙 정하기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 구혜숙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 - 학교 문화의 혁신 | 김윤성
 소통 · 협력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 이은영

086

생생교육

찾아가는 학교
 이런 동아리
 우리 학교는

창원중앙고등학교 | 박도영
 양산중학교 '나도 작가' | 김보리
 창원한별유치원 | 송유현
 갈육초등학교 | 최철원
 함안여자중학교 | 김남희
 밀성제일고등학교 | 신현구

브라보 경남교육!

연수후기
 연수체험기
 교직실무

남해여자중학교 배구부 | 박경희
 배움중심 교사수업 국외 교류 연수 후기 - 일본 | 진영학
 해외교육탐방 후기 - 북유럽 | 김성준
 2018년 도의회 운영 및 조례 제·개정 바로 알기 | 이지연



160

여유와 멋

내 아내의 모든 것 | 윤창욱

169

아이좋아 갤러리

아드리아해변의 오후 | 류차현

* 표지사진 | 창원한별유치원 제공

* 표지 이야기 | 편집자

* 교사의 눈 | 김태우





「교육경남」은 열린편집을 지향합니다.

「교육경남」은 현장교육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며, 「교육경남」 2018. 여름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 이런 원고를 보내주십시오.

학교의 특색 있는 행사 사진과 내용, 기관, 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우수 사례, 「교육경남」에 대한 제안/소감, 문예작품 등

✓ 원고 보내실 곳

- 담당자 메일 : ohit12@korea.kr

5114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번길 20 / Tel (055)269-0712

* 원고 끝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약력, 이메일을 기재바랍니다.

- 투고하신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교육경남」은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ebook-lib.geri.go.kr)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경남편집위원회





2018. Spring story EDUCATION GYEONGNAM

| 권두언 |

- 008 민주시민교육 : 개인이 먼저냐, 공공이 먼저냐?
황선준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 교육경남 초대석 |

- 012 좌담 | 학교는 행복한가?
오인태 | 교육경남 편집주간

| 경남교육의 창 |

- 022 바칼로레아의 꿈
송승환 |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초대논단 |

- 026 나의 마드리드 미술기행
백승중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민주시민교육 : 개인이 먼저냐, 공공이 먼저냐?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본연의 임무가 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미래사회를 살아갈 지식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난 20여 년 간 유럽을 비롯하여 크게 변해왔다. 전통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지식(knowing)뿐만 아니라 사고하는(thinking) 힘과 체험하고 실천하는(doing) 능력까지를 제공하는 역량(competence) 중심 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지닌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첫째 임무다.

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연구는 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만 14세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시민의식) 지식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태도나 활동은 최하위 수준이다. 학교에서의 민주적 참여 활동과 영향력, 학급에서의 토론 문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미래의 정치적 참여나 시민사회에서의 활동 등의 분야에서 한국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는 그야말로 밑바닥 수준이다. 국가나 기관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다. 이민자나 다른 인종의 권리 또는 성 평등에 대한 태도는 최하위 수준은 면했으나 참여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위계질

서가 뚜렷한 유교적 문화 및 가부장적 사회 전통과 개인과 평등사상이 녹아있는 민주주의 간의 불협화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식 측면에서는 알고 있으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태도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격심한 경쟁에 의한 입시 교육의 틀 속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에 주어진 민주시민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논할 수 있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부분은 ICCS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교육이 잘 하고 있다. 둘째는 학생들이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활동, 교사와의 관계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하고 삶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는 민주주의를 삶의 형태로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ICCS 연구는 학교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분석에서 교사의 영향력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한국이 참가국들 사이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교장과 교사 사이에 불신이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참여는 필수적이고

교장은 이들의 의사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교장의 민주적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편 이러한 학교의 민주시민 양성 교육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이다. 헌법 제7조2항과 31조4항은 각각 ‘공무원의...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의...정치적 중립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하위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66조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 및 집단 행위의 금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박탈되었고 이는 교사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일부 교사들은 이 조항 뒤에 숨어 스스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박탈된 기본권을 당연하게 여겼다. 나아가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교사들이 정치나 정치체제에 대해 수업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고 이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폐지하고 보이텔스바흐 정신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정치적 주입교육을 금지하고 (헌법의 정치적 중립 대신 교육기본법에 정치적 주입교육 금지를 명시할 수 있다),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것을 학교에서도 논의, 토론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철학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민주시민으로 키워야 한다. 인간은 결코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정치와 관련된 것을 금기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찍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고민하며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해야 한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민주시민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주시민을 키워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는 크게 개인중심 민주주의와 사회중심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체적인 개인(The sovereign individual) 철학에서 출발하여 개

교육의 두 가지 임무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미래사회를 살아갈 지식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인이 집단이나 사회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또 개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이 판단에 근거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 국가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해치지 않는 한 그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인중심 민주주의는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보다 우선시 된다고 믿고 있다. 반면 사회중심 민주주의는 개인의 삶이 사회구조나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사회에서 한 개인은 다른 개인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회는 개인에게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계도 제공한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협력할 때 사회구성원 모두의 최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연대성(Solidarity)과 공공성(The public)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된다. 따라서 사회중심 민주주의는 공공의 최선이 개인의 최선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이런 두 천칭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개인중심 민주주의에 상당히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의 만연이 그 방증이다. 바람직한 사회는 이 두 민주주의 사이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좀 더 사회중심 민주주의에 방점을 두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공공성과 연대성에 기초한 공동체'를 조화롭게 양립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한 명의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타인과 더불어 사는, 그 사회적 약자와 강한 연대성을 느끼는 주체적 인격체로 키워내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다. **교육경남**

학교는 행복한가?



✓ 때

2018. 2. 28. (수)

✓ 곳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협의실

✓ 참석자

박종범 | 마산가포고등학교 교장

류영선 | 화제초등학교 교장

전지영 | 명서중학교 교사

하옥주 | 사파중학교 교사

김채영 | 김해봉황초등학교 학부모

✓ 사회·정리

오인태 | 교육경남 편집주간

✓ 사진

송재윤 | 교육경남 편집위원

오 다들 개학준비로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는 행복한가?’라니, 다소 도발적인 주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학교교육을 짚어보는 키워드나 화두로 ‘행복’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훈교육감 체제의 핵심 정책이자 공약이기도 하고요. 먼저 경남 행복학교의 간판 격으로 언론에 자주 조명되고 인용되기도 하는 화제초등학교 사례부터 들어볼까요? 화제초는 행복학교 운영의 역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류 학생자치, 교육과정 재구성, 민주적인 회의문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부모 참여문화 조성 등에 두고 있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류 먼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이루어낸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아침 여덟시 사십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네 시에 끝나는 학교생활은 아이들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교생활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수준의 학년교육과정은 개인, 학년, 지역특성에 맞도록 구성하고, 음악과 그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예술적 감성 키우기, 온 작품 읽기를 통해 인문학 접근하기, 삶을 표현하는 글쓰기,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 속에서 삶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 우리 학교에서는 배움중심수업을 위한 ‘ㄷ’자 좌석 배치와 수업 나눔을 통한 학생 배움 중심 수업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 있어 학급 신뢰서클, 교사와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회복의 철학을 공유하며, 학생 또래조정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2018학년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통합프로젝트수업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오 김해봉황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이 오셨는데요.

김 우선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동아리 홍보에 신경을 썼고 학부모 연수 등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결국은 자주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달 한 번씩 같이 모여서 편안하게 생각을 얘기하는 ‘학부모 다모임’ 그 외 밴드 등 SNS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일이 학교를 이해하고 학부모들의 힘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데 애로와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 류영선

하

중 소 규모 의 학교라고 교사 수에 비하여 업무량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전담 교사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업무량 적정화에 따른 학년전담교사에게도 일정 업무를 배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업무량 감소와 적정화가 이루어져 교사가 일과시간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협의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따른 교류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류

교원행정업무 적정화 문제, 관리자의 마인드와 지원의지, 교사의 자발성과 진정성,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관계성의 조화, 학부모들의 교육과정 이해와 교육활동 참여 정도에 대한 한계 등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은 점을 행복학교 운영의 장애요소로 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학교 4년이 끝나고 교무행정원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김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니 행동도 다

르고 그런 마음들이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지 알려 하지 않고 불만만 토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함께 알아보고 그것을 공유하려고 학부모 연수도 자주 해보았지만 참여율이 낮아 맥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문제는 행복학교 운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정말 행복해지느냐는 건데요. 먼저 학부모 입장에서 행복학교 운영에 만족하시는지요?

김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하진 않았습시다. 지금도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분명한 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행복해서 웃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힘들었던 그 시간이 귀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하

지난해 행복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썩 만족스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들께서는 고교교육과정 적응과 대학입시에 따른 걱정이 여전히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행복학교이기에 배움중심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본교 입학에 지원한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행복맞이학교부터 3년 과정 동안 행복학교에서의 수업, 학생자치활동, 자율동아리 등의 활동을 당연한 것으로 느끼기에 그다지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교사들은 수업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 함께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뿌듯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류 교사들은 매우 열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차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3년 동안 마음껏 교육과정에 녹여서 운영하다 보니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완전 포화 상태가 되었다고 선생님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활동들이어서 그만 둘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겠지요. 그러다보니 선생님들 스스로 덜어내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의 사고, 공유의 미덕, 함께 하기 등 공동체 활동에 대해 수용과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선생님들이 개인의 시간, 개별성의 자유, 그리고 학교보다는 교실을 우선순위에 두자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스스로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오 행복학교 선생님들도 진화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웃음) 아무튼 선생님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아무래도 좋아하겠지요?

류 2월 13일 우리학교 졸업장 수여식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리허설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졸업생이 20년 후 동창회를 하면서 6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회고하는



△ 김채영

연극놀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사랑과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마음껏 표현하며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오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바뀐 학교문화와 교실 풍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하 올해 교직원워크숍에서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민주적 학교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과정, 남녀합반 문제 등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토론으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하옥주

김 진로상담 동아리에 6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 이전의 학교문화가 개인적인 모습이 강했다면 지금은 협력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져 보입니다. 행복학교 1년차, 2년

차를 거치면서 ‘함께 해야 잘 할 수 있고 모두가 즐겁다’는 것을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고 선생님들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변화한 학교 모습에 대해 교사들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류 교직원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관리자와 교사, 교직원, 교육공무직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지원이 각자 고유의 영역을 침

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협력하며 이견은 줄이고 공감대는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 교직원 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면 교사와 학생 사이도 더욱 친밀해질 것이고 교실수업도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류 교실은 더 자유롭습니다. 선생님 호칭은 다 누구 쌤으로 통합니다. 1학년 꼬맹이들이 쉰 살의 선생님보고 진희쌤이라고 부르는 식이지요. 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선생님께 버릇없다고 나무랐고, 골마루에서는 뛰지 마라, 거슬리는 행동을 볼 때마다 불려서 일깨우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장이라고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 행복학교 바깥에서 행복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 행복학교, 그래서 선생님은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요.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행복학교의 철학이 미래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것이 또 다른 행복을 위한 시간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

학부모들은 행복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김

막연하게 행복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는 만큼 이해하고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제 주위 분들 역시 처음엔 부정적이었습니다. 공부 안하고 시험 안 치고 놀기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들 역시 막상 원하는 학교 모습을 물어보면 행복학교에서 일상처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행복학교에 대한, 특히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행복학교가 뭐하는 곳이냐는 겁니다. 아직 경남의 혁신학교가 행복학교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고, 행복학교를 그냥 시범학교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학교를 경남공교육의 모델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려면 행복학교의 가치에 대해 알려내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전 선생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운을 떼시는 것 같은데요. 행복학교 바깥에서 행복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전

제가 아는 분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자녀를 행복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사

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딱딱한 강의식 수업만을 강요받는 학교보다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다양한 배움중심수업을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밖에서 보면 학생들의



△ 전지영

만족도는 높겠지만 교사들은 힘든 것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5년차에 접어든 행복학교의 수업공개, 민주적인 회의문화, 그리고 학생 주도의 학생자치의 모습은 행복학교별로 편차는 있지만, 이미 많은 학교에서 참고하는 공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

2017년 9월, 어쩌다보니 행복학교 교장이 되었고,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순식간에 반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바쁘니까 나도 덩달아 바빴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뛰고 있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자발성과 진정성, 그리고 열정을 장차 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오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 오인태

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물어보면 대부분 친구와 만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45분 수업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점심시간

급식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친구는 수평한 관계이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이고, 함께 즐거운 일을 도모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를 거꾸로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보내는 45분 수업시간을 친구들과 교사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야기 나누고 모르는 것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행복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하

행복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회와 학생 자율동아리가 살아있습니다. 각 종 캠페인 활동, 피스존 설치, 체육대회, 학교 축제를 학생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기획하고 있습니다. 걸스킵합, 축구, 반갑다인(in)사와 등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서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해?” “게임하고 있을 때요.” “친구랑 있을 때요.”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요.” 제가 내린 결론이 맞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선생님과 웃으며 부대끼고 추억을 쌓고 행복학교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서 행복학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봉황초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자랑합니다.(웃음)

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비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더 좋은 방향을 찾기도 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도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불어 함께하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삶을 이해할 때, 좋은 수업 속에서 배움을 찾았을 때 기쁨이 더해지고 비로소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해지겠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잘 하게 될 뿐 아니라 자연히 남들로부터도 인정

받게 될 테고요. 중등,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다른 차원에서 행복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 1995년 5·31교육개혁조치를 통해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였지만 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와 부합된 교육정책의 도입으로 교육의 시장화·상업화·개인화가 초래되어 과열경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등교육이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했고,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으나 지식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학부모와 기성세대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으며, 역시 행복학교의 철학을 중등교육에 확산시키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 주위의 중등 경남 행복학교 학부모들과 애길 나누어 보면 학부모입장에선 역시나 이견 어딜 가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의 참여율은 단연 초등학부모가 최고입니다. 그러다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급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야 직업이고 고학년 진학이란 관문이 있으니 의무적으로 해야겠지만,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이런 동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쳐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교육이 주요 담론이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학교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 네트워크 중심의 초연결 사회로 불리는 4차



△ 박홍범

산업혁명 시대에서 학교교육은 인지역량과 비인지역량의 균형과 함께 융합능력 배양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둔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수업과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관점의 전환으로 융합과 창의, 경험과 이론의 결합으로 핵심역량을 기르고, 학생 개인중심의 창의성 교육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창의성 교육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협업과 협력을 통하여 타인과 소통을 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과 헌신을 발휘하는 역

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학교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며 여러 관계를 맺고 건 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곳이라는 데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두 공감하고 동의할 것 같습니다.

전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협업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으로는 길러질 수 없습니다. 세계교육의 큰 흐름을 보아도 학교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요체는 지식이 아니라 협업, 공감, 소통, 활용능력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토의토론수업, 교과 간 혹은 주제 통합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이 주인이 되는 수업의 형태로 전환될 때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류 학교교육의 요체는 결국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어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의 밑바탕에는 인간

이 갖추어야 할 인성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하겠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학교 공동체의 의식 변화, 특히 관리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며 교사의 자발성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가장 이상적인 학교, 이를테면 ‘내가 꿈꾸는 학교’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것으로 좌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이상적인 학교는 민주성, 미래성, 공정성, 지역성의 기본가치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학교로서, 자발성에 기초한 민주적인 학교, 배움 중심 수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지역과 함께 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학교일 것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자기 효능감과 보람을 얻고, 학생은 친구들과 협력하고 나누며 실천함으로써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학부모는 학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아이 함께 키우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하 행복학교 주무를 맡으면서 행복학교 정책 일반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적 학교 문화에서 나아가 지역 사회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면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우선 교실에서 행복할 수 있으려면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배움이

“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순간이
 많아지는 학교가 가장 이상적인
학교 모습이 아닐까요?

”

일어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하여 건강한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나’도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가 될 것입니다.

김 이상적인 학교는 행복학교든 교육정책이든 모든 교육이 일회성 또는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 학부모, 지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개인으로서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도 건강하게 성장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경남형 혁신학교의 이름을 행복학교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지금의 학교가 덜 행복하다는 반증이며, 동시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순간이 많아지는 학교가

가장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류 학생,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자원봉사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색깔과 역할로 살아 움직인다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오 행복학교도 역시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긴 시간 진지하고 열정적인 토론, 고맙습니다. **교육경남**

바칼로레아의 꿈



—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도 가치가 존재하는가?
- 진리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진리 대신 위안을 주는 환상을 좇아도 좋은가?

프랑스 바칼로레아 문제들이다. 프랑스 아이들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안을 써 낼까 하고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학생들은 이런 질문에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답해 왔고 지금도 예전과 같이 새로운 물음 앞에 답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의 한 실업 고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찢어진 청바지에 젖가슴이 다 드러나도록 셔츠를 걸친 여학생들의 태도에서 나는 도무지 지성적인 구석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간담회 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의 차림새와 태도로 볼 때, 라캉의 저술을 읽을 것 같지 않다는 내 발언에 얼굴이 굳어진 여자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찢어진 청바지와 라캉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그리고 라캉도 읽고 들뢰즈도 읽는다고. 그 때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제멋대로 사는 듯해 보이는 프랑스가 혼란과 경쟁의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철학적 사유의 힘과 그것을 지속시키는 바칼로레

아에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200년이 넘는 이 바칼로레아의 전통이 프랑스인의 지성을 떠받드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 있음은 프랑스인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도 바칼로레아 문제가 발표되면 어른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저마다 그 문제에 답해 보느라 술렁거린다고 하니 이 지적 축제가 정말 부러울 따름이다.

수능식 시험, 곧 선택형 평가는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잣대로 무턱대고 신봉하는 태도에서 나는 바칼로레아식 논술 시험의 당위성을 바로 그 점에서 찾고 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채점 과정에 두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논술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술 시험을 없애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우는 격이다.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에서는 여러 주제로 부대 공연이 이어졌다. 연출가는 빛을 이용하여 수많은 이미지를 표현했고, 그것을 통해 강렬한 메시지를 보냈으며, 사람들은 공감과 감동으로 가슴이 뛰었다. 이 빛의 예술을 빚어내는 일에서 논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선택형에 익숙한 사람은 지금까지 창조한 예술가의 작품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데 능숙함을 보일 것이고, 또 그렇게 골라잡아 짜맞추는 연출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온 이른바 논술형 인재는 전혀 새로운 빛의 세계를 응당 보여 줄 것이다. 선택형 시험에서 아무리 잘 골라도 우리가 고른 그 답안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선택형 평가의 존립

근거는 매우 구차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래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 새 정부조차 논술을 배제하는 그 무지는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다. 선택형 평가가 버티는 체제에서의 교실 수업으로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다면 그 정책을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여느 교육청보다 빨리 과정 중심 수시 평가를 도입하여,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의 평가 체제 일신은 그 대로 교실 수업 개선에 이어져 사고력, 창의력과 같은 지적 능력, 협업과 소통을 통한 관계의 감수성 등 미래 역량을 갖추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에 있어서는 다른 교육청보다 늦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쉽기만 하다. 논술형 평가의 전면적 도입이 풍파를 몰고 오겠지만 급속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면 격렬한 충격을 서둘러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좁은 견해만을 내세워서 그와 견해가 같으면 옳다 하고, 견해가 다르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치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면서 자기처럼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 원효, '보살계본지변요기'

논술은 글의 한 양식이다. 영혼을 드러내는 하나의 양식이다. 시가 마음을 움직인다면 논술도 마땅히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려면 독자를 감동시켜야 한다. 독자가 품고 있는 꿈의 근원을 들추어내야 하고, 독자가 둘러싸 놓은 견고한 아집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게 해야 한다. 지식으로 눈빛을 맑게 해야 하고, 논리로 진실의 힘을 느끼게 하고, 뜨거운 신념으로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을 문장에 담아 꿈꾸게 해야 한다. 꿈꾸게 함으로써 독자의 삶을 뜨겁게 달구고, 이웃을 또 달구게



하여 우리 세상이 뜨거워지고 아름다워져서 삶을 사랑하게 해야 한다.

논술은 언제나 앞을 바라본다. 멀리 바라보기 위하여 지난날과 오늘을 들여다본다. 이것이 예지다. 그러나 예지의 멀고 깊은 눈은 가까운 데서 비웃된다. 얇과 얇의 고리를 이어 얇의 깊이와 넓이를 키우면서 생각을 기른 다음에야 예지는 번득인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지금의 잘잘못을 따진다. 미래의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다.

논술은 꿈이다. 거짓과 험잡과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와 정견의 세상을 꿈꾼다. 가벼운 얇을 주절거리며 얇이 모자란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에 절망하면서도 또 미래를 부른다. 얇은 견문에 우쭐거리며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에게서 더 안타깝게 미래를 열망한다. 그래서 논술은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일이다.

논술을 입시와 관련지어서만 생각하지는 말자. 그러면 또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논술, 곧 우리의 바칼로레아가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점에 눈을 돌리자.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평가가 이끄는 참다운 배움을 통해 자신을 아름답게 키워 가는 그 꿈을 그려 보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미래에 주목하자. 깊은 사유와 교양이 빛어내는 품격 높은 삶,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경남교육이 먼저 새 바람을 자장처럼 퍼뜨려 보자.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그 꿈을.

나의 마드리드 미술기행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역사학

여행에 앞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가 나를 불렀다.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매우 오래 전부터 그곳에 가고 싶었다.

첫째, 마드리드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도시의 역사는 서기 9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역사의 첫머리를 장식한 것부터가 이민족인 아랍인이었다.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300년간 그들 침략자가 이 도시를 지배했다. 아랍인이 쌓은 요새의 이름은 마이리트였다.

1085년 카스티야(스페인)의 왕이 요새를 탈환했다. 그때부터 마드리드라고 불렀는데, 아직은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1561년 톨레도(Toledo)의 뒤를 이어 스페인의 수도로 떠올랐다.

도시는 발전을 거듭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속속 들어섰다. 16-17세기 마드리드는 정치적으로는 물론 예술과 문학 방면에서도 전성기를 누렸다. 이른바 ‘황금의 100년(Siglo de Oro)’이었다.

그 뒤로도 마드리드는 수차례 역사적 질곡에 빠졌다. 먼저 프랑스 부르봉(Bourbon) 왕가의 개입을 언급해야 한다. 그들은 18세기 초부터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드리드를 지배했다. 1808년에도 다시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다. 이번에는 나폴레옹의 차례였다. 스페인은 또 다시 존망의 기로에 섰다. 19세기말에는 산업혁명의 물결이 넘실거렸다. 마드리드는 팽창을 거듭했다. 1931년부터 마드리드는

마드리드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주인공이며
미술의 보고이다.



△벨라스케스 동상 앞의 필자

제2공화국을 세운 좌파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나 1939년 내전에서 그들이 패배함으로써 한 시대가 저물었다.

1939년 우파 독재자 프랑코 장군이 마드리드를 점령했다. 그는 여기 머물며 스페인 전국토를 호령하였다. 1975년 드디어 독재자가 죽었다. 국왕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1세는 스페인에 민주화를 가져왔다. 마드리드는 이제 활기찬 문화도시로 부활했다. 어두운 역사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서광이 비쳤다.

둘째, 마드리드는 미술의 보고이다. 프라도 미술관(Museo del Prado)이 있어서이다. 이 미술관은 세계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힌다. 마드리드에는 이른바 ‘미술관 3각지대’가 있다. 프라도미술관, 티센(Thyssen) 미술관 그리고 소피아 왕비(Reina-Sofia) 미술관이 그것이



고야, <1808년 5월 3일의 처형>, 266.1x345.1cm

스페인의 예술혼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마드리드를
찾아야 한다.

다. 이밖에도 30개가 넘는 콘서트홀과 극장이 있어, 문화도시 마드리드의 화려한 얼굴을 대변한다. 스페인의 예술혼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마드리드를 찾아야 한다.

프라도미술관에서

스페인은 유난히 역사의 어둠이 짙었던 나라다. 굳이 악명 높은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1892-1975)의 독재를 떠올리지 않아도 그랬다.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는 피비린내 나는 스페인 내전(1936-1939)에 참전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라는 소설을 썼다. 한 마디로 19-20세기 스페인의 사정은 실로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일까. 유럽인들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미개하고 끔찍한 곳으로 기억한다. 유럽 여러 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널리 퍼져있다.

그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에는 무언가 뜻이 담겨 있었다.
때문에 그는 마드리드에서 교수형을 받고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마드리드를 잔혹함의 대명사로만 기억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곳에 프라도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프라도 미술관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미술관이다.

본디 스페인 왕가는 많은 회화작품을 소장했다. 그 중에는 엘 그레코(1541-1614), 벨라스케스(1599-1660), 고야(1746-1828)를 비롯한 스페인 출신 거장들의 작품들이 포함되었다. 그 작품들을 우리는 프라도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프라도에는 스페인 왕실과 관계가 깊었던 플랑드르 출신 화가들의 작품도 수두룩하다. 아울러 스페인의 화풍에 영향을 미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즉 라파엘로와 보티첼리 등의 작품들도 이 미술관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나의 두 눈은 마드리드에서 호사를 누렸다. 프라도 미술관만이 아니라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와 티센 미술관에서도 뛰어난 걸작을 무수히 만났다. 그 가운데는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대표작품 <게르니카(Guernica)>도 포함되었다. 나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벨라스케스, <시녀들>, 318x276cm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조그만 마을 이름이다.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내란 당시 프랑코 군을 지원하는 독일 비행기가 이 마을을 폭격하였다. 삼시간에 무려 2,000여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피카소가 전쟁의 비극과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품을 완성했다. 이 작품은 그 해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전시되었다(스페인관). 그 뒤 여러 해 동안 뉴욕 현대 미술관이 이 그림을 소장했다.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가 죽고 나서 이 그림은 스페인으로 돌아왔다(1981년). 피카소의 유지에 따



고야, <만사나르들과 춤추는 마하들>, 295x272cm

영광의 시간은 짧았다.
이후 수세기 동안
스페인은 서서히
몰락하였다.

른 것이었다. 피카소는 독재자가 다스리는 조국정부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냈었다.

스페인은 특이한 나라이다. 지중해의 변방에서 일어나 16세기에는 남미 대륙의 보물을 독차지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시간은 짧았다. 이후 수세기 동안 스페인은 서서히 몰락하였다. 잔혹한 마녀재판과 유대인학살로 악명을 얻었고,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아 국토가 황폐해지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 혼미를 거듭했으면서도, 스페인사람들은 위대한 예술혼을 통하여 세계를 놀라게 할 때가 여러 번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화가들이 그러했고,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1547-1616)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들 거장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 내가 마드리드를 찾은 목적이었다.

고야의 무덤 앞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유독 그림을 소중히 여긴다. 왜 그런 것일까. 르네상스 문화의 영향일 것이다. 14-15세기 유럽문화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조각과 그림의 새로운 경향, 곧 르네상스를 앞 다퉈 모방하였다. 가령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스페인이 그러했다. 특히 스페인의 노력은

더욱 각별했다. 이 나라는 이탈리아와 지리적으로 가깝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지중해무역을 뛰어넘어 대서양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선구자였다. 그래서인지 스페인은 문화적으로도 이탈리아의 지도적 위치를 넘보려 하였다.

스페인은 남미대륙에서 잉카와 마야문명을 무너뜨리고 막대한 금을 강탈하였다. 남미사람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해 수십 톤의 귀금속을 생산하였다. 은화 한 닢을 만드느라 여러 명의 잉카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정도였다. 이렇게 거둬들인 피의 대가로 스페인은 도시를 새로 만들고 화려한 성전을 쌓았다. 로마교황청의 권위를 빌리고자 했던 스페인의 왕과 귀족들은 가톨릭교회의 수호자를 자처하였다. 그들은 신교와의 종교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위대한 스페인의 영광은 금세 사라졌다. 그들이 신대륙에서 착취한 금은보배는 스페인의 산업을 부흥시키지 못했다. 그로써 새로운 사상이 탄생하지도 못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스페인은 인류사의 위대한 문명 하나를 거꾸러뜨렸을 뿐이었다. 또, 종교전쟁을 통해 유럽의 분열을 고착시켰을 따름이었다.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15세기까지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이베리아반도에 새로운 시각예술을 싹틔웠다는 점이다. 스페인은 유화의 매력을 발견했고, 새로운 색채미와 조형미를 찾아냈다. 이후 스페인은 서양미술사에 독자적인 흐름을 창출하였다. 그림이야말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이 되었다.

스페인에는 결코 학자와 시인, 군인과 상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여러 방면에 빛나는 이름이 존재하였으나, 유독 이체를 띤 것은 회화분야였다는 말이다.

16세기부터 왕실은 집중적으로 화가들을 후원하였다. 이것이 스페인 왕실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일찍이 이슬람의 지배가 시작된 9세기부터 이 지역의 문화적 특색으로 정착된 기하학적 미의식도 스페인의 독특한 미학으로 뿌리내렸다. 스페인은 중세에 종교재판



△고야의 관이 안치되어 있는 마드리드의 조그만 교회에서

이 유독 가혹했기 때문에, 회화에서도 은유와 상징의 기법이 교묘해졌다. 스페인 역사의 굴곡은 그들의 회화예술에 있어 독자적인 미학과 표현방식을 낳은 것 같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서양미술을 깊이 탐구한 저술이 많이 늘었다. 간단한 여행안내책자들까지도 방문국의 예술세계를 제법 요령 있게 일러준다. 또, 외국에서 출간된 예술사 서적도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제법 많아졌다. 나 역시 마드리드 여행을 준비하면서 수십 권의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다. 내 여행의 초점이 스페인의 예술사 탐구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마드리드에 머문 열흘 동안 나는 거의 날마다 프라도미술관을 방문했다. 밤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이 났다. 방문에 횃수를 더할수록 깊은 매력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라파엘로, 보티첼리, 브뤼헬, 뒤러, 보쉬, 티치아노, 리베라, 루벤스의 그림이 좋았다. 하지만 내가 가장 집중해서 살핀 것은 스페인의 거장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그리고 고야였다. 이들 세 사람의 그림은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살펴보았다. 오롯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의 화가를 만나기 위해 프라도를 찾아간 것도 몇 번이나 되었다. 그 중의 하루는 고야의 후기 화풍, 즉 흑색그림들만을 감상하기도 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식으로 몇 달이고 그림 구경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프라도미술관에서 그들의 그림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상념에 젖었다. 두 가지 소감만을 간단히 적어둔다.

스페인의 거장들이 표현한 시각예술의 세계는 내가 꿈꾸었던 역사가의 길에 가깝다.

첫째,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의 작품을 바라보며, 나는 역사가의 길을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대답을 들었다. ‘보이는 그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도 우리는 지워야 한다. 보이지 않는 사물도 우리는 묘사해야 한다.’ 화가의 길과 역사가의 길은 물론 다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레짐작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스페인의 거장들이 표현한 시각예술의 세계는 내가 꿈꾸었던 역사가의 길에 아주 가깝다. 엘 그레코가 말했듯, “형체보다 색채가 우선한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낱말의 사실이나 개별 사건보다 역사적 맥락이, 또는 그 해석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둘째, 내가 존경하는 스페인 화가들은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곤욕을 치렀고, 세상에서 곧 잊혀졌다. 그러고는 다시 찬란하게 부활했다. 그들 화가는 예외 없이 삶을 옥죄는 기성체제의 비판자들이었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정면대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배신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맞설 미학적 구도를 설계하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그들의 작품이 추상에 흐르고 만 까닭이 있었다. 하필 화폭이란 평면 위에 입체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이유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 화가가 하찮은 일상의 주인공들에게 것처럼 깊은 애정을 나타냈고, 교회의 명령과 질서에 저항한 것도 다 이유 있는 일이었다.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아니 이 두 사람을



△ 톨레도 대성당

나의 스승 고야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나는 마드리드를
떠나기 전날 가랑비를 맞으며
그의 무덤을 찾아갔다.

합친 것 이상으로 고야가 나의 스승이다!

나의 스승 고야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나는 마드리드를 떠나기 전날
가랑비를 맞으며 그의 무덤을 찾아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
을 흘리며 애도의 시를 읊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다수의 고야들이 여기
에도 저기에도 아직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다. 이것이 오늘의 진실이다.

chonmyongdo@naver.com



2018. Spring story EDUCATION GYEONGNAM

| 특집 | 새내기교사의 2018 행복맞이 준비

- 036 배움으로 '미소지다(美-疏-智-多)'
구현숙 |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 042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정혜윤 | 김해봉황초등학교 교사
- 048 관계로 맺어진 신뢰, 배움을 통한 행복
홍현화 | 봉명중학교 교사
- 054 존중 · 소통 · 협력 · 배움의 가치 담아
윤나라 | 아림고등학교 교사



배움으로 ‘미소지다(美-疏-智-多)’



—
구현숙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배움은 ○○○이다’, ‘가르침은 ○○○이다’ 이에 대한 답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경남교육의 수업 트렌드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배움중심수업’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 교사들은 최근 몇 년간 배움중심수업의 개념과 철학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배움중심수업에 관한 다양한 자료의 개발, 배움중심수업 실천에 따른 수업 성찰과 비평, 전문적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경험의 공유와 축적 등을 통해 배움중심수업에 관해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배움중심수업은 어떻게? 그리고 학생들의 하고 싶은 활동만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까? 수업에서 가르



침은 빠지고 배움만 강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아직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최고의 수업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

경남교육청은 2018년에는 수업에 ‘어떻게’라는 화두를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배움중심 교사 수업 국외(일본)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보다 일찍 ‘배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개념을 실천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지금도 배움을 위한 수업연구가 매우 활발한 일본의 수업에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수업 국외 교류에 참여한 교사들은 최고의 교사로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가득하여 최고의 교사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교사 수준 교육과정, 교육부가 아니라 당신이다.

2월 학교 현장은 2018학년도 준비에 가장 바쁜 시기이며, 일 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위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으로 한 학년을 운영하기 위한 설계 중심이었던 지난 시간의 현장은 선배 교사들의 자료, 지난 학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만들기를 시도하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다. 혼자서는 힘든 작업이며,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공동사고가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고민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구성요소별 해야 할 일과 산출물을 정리하여 계획을 세워 나갈 수

교사 수준 교육과정의 절차와 구성 요소

절 차	교육 철학나누기	교육과정 구성하기	
구성요소	목표	내용 및 방법	평가
사전 준비 자료	▶ 교육과정 (국가, 지역, 학교 수준) ▶ 학년(학급)교육목표 및 중점교육계획 서식	▶ 교과목별 성취기준 ▶ 성취기준 맵핑자료 ▶ 교과목별 연간 기본진도표 (NEIS출력물)	▶ 연간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안 서식
해야 할 일	▶ 교육과정 읽기 (국가, 지역, 학교 수준) ▶ 교육철학 나누기 ▶ 교육 목표 세우기	▶ 성취기준읽기 ▶ 중점교육관련 성취기준 선정하기 ▶ 성취기준과 단원 연결하기 ▶ 교육과정 구성 관점 적용하기 ▶ 연간 교수·학습 계획수립하기	▶ 연간 평가계획 수립하기 ▶ 평가기준안 작성하기
산출물	▶ 학년(학급)교육목표 및 중점교육 계획	▶ 연간 교수·학습 계획 (시수, 학습내용, 평가차시 등)	▶ 연간 평가계획 및 평가 기준안
	1일차	2일차	3일차



△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하동초등학교 새내기교사수업공동체 사진 | 성진옥 편집위원

있다. 이렇게 세워진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고 필요에 의해 수시로 수정하며 실제 활용하는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천하려고 준비 중이다.

오늘은 내가, 내일은 우리가(수업실천)

교사들은 주제 통합 중심 재구성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 새로운 방법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또한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재구성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은 ‘교사 수준 교육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교사 수준 교육 과정에는 꼭 실천 교육과정이 따라야 한다. 교사 수준 교육과정 구성이 계획되면 수업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성취기준 중심 교사 수준 교육과정 구성 과정

교육과정
읽기

교육과정 읽기(교육과정 해설서, 교과서, 지도서 읽기)

- 교과 교육과정의 성격, 성취기준, 내용, 방법, 평가 분석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평가와 연계)
- 단원 개관, 계열, 단원 목표, 교과역량, 일반화된 지식(2015 개정) 파악

교육과정
구성 관점
및 의도 반영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사 수준
교육과정 구성 관점 및 의도 반영**

- **학생**: 발달단계, 능력과 수준, 흥미와 태도 분석
- **환경**: 지역적 특성, 학교 환경 고려
- **교사**: 철학과 가치, 역량 반영

교육과정 구성
유형 결정
수업사례 참고

교육과정 구성 유형 결정

- 학습 내용 추가, 대체, 생략, 축약 등의 **단원 내 재구성**
- 교과 내 재구성, 교과 간 재구성, 교과와 비교과 연계 재구성 등

교육과정 구성 전략

▶포괄적 문제해결학습 적용

- 1단계: 도입문제 선정하기
- 2단계: 단원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문제 선정하기
- 3단계: 세부문제와 연관문제 선정하기

▶백워드 설계 적용

- 1단계: 기대하는 학습 결과 확인하기(목표 설정)
- 2단계: 다양한 평가방법 결정하기(수행과제 설정)
- 3단계: 학습 활동 계획하기(학습 내용 및 활동 계획)

배움중심수업
및 평가

배움중심수업 철학과 가치 적용 수업 실천하기

-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실행 계획 수립
- 차시별 학습 내용의 재구조화 및 교수·학습 방법 구안
- 교수·학습 과정 안에 의한 배움중심수업 적용

성취기준을 지식, 기능, 태도로 분석하여 배움중심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과정중심 수시평가 실시

평가 결과
피드백

교사: 교수·학습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학생: 성취기준 도달과 학생 성장 실현



이러한 국가, 지역, 학교의 교육목표에 준하여 실행되는 교사 수준 교육과정의 학년말 계획과 실행이라는 인고의 작업을 통하여 실천해 나갈 때 교사는 배움으로 '미소지다(美-疏-智-多)'로 최고의 교사로 거듭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리고 배움과 수업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질문, 격렬한 토론과 소통, 철저한 분석 및 정리를 통해 저마다의 교육관도 정립해 나갈 때 우리는 수업의 전문가로서 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ku10022@korea.kr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정혜운
김해봉황초등학교 교사



교사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급
훈으로, 혹은 자신만의 독특한 학급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 같
다. 다른 선생님들을 보니 저마다 멋진 학급 이름을 갖고 계셨
다. 은빛샘, 해찬솔, 명보, 예그리나 등. 하지만 2017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3월 1일자 신규발령을 받아 6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던 나는 학급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보니
그저 막연한 느낌만 갖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과 ‘배려’라는 가치를 담아 ‘서
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우리 반’을 시작했었다. 급하게 지은 목
표였는데 어찌다보니 밴드 이름도, 급훈도 그렇게 쓰게 되어
그대로 1년을 가져가게 되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반’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덕인지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졸업하는 날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도 선생님을 많이 사랑해주어서 고맙다는 것이었다. 아이들도 그랬는지, 아이들이 선물해 준 영상편지와 졸업식 후 보내온 마지막 인사들도 ‘저희를 아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사춘기 아이들이 어찌나 서로를 싫어하는 ‘척’을 하는지 팬스레 톡톡거리며 시비걸기 바쁜 아이들을 보며 좌절도 많이 했었는데, 매일같이 싸우던 처음에 비해 친구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사이가 참 많이 돈독해졌다. 예쁘고 멋진 나만의 학급 이름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만, 올해도 작년처럼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그대로 이어갈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름이야 아무려면 어떠랴. 1년간의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행복학교이다. 그러므로 우리 반은 행복학급이다. 따라서 올해 나의 최우선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반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노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정한 체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함께 성장과 배움이 일어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그를 위해서는 지력, 체력, 심력을 골고루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예비중학생으로서 기본적인 학습습관 형성과 학력 향상이 중요한 시기이다. 필기구를 점검하고, 코넬식 노트 정리법을 사용해 복습하며,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마련하여 자기관리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도구교과인 국어교과학습에 중점을 두고 온책 읽기를 통해 독서습관을 길러주고자 한다. 단순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교과를 엮어 활동함으로써 책 속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 스며들게끔 할 수 있다. 또한 지적 발달을 위해 네모로직과 스도쿠 퍼즐놀이를 꾸준히 하여 수학적,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시키고 싶다. 작년에 아이들과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다보니 프로젝트 과제물도 많이 받게 되고, 발표 수업도 자주 하

였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이들의 정보화관련 소양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한글과 파워포인트, 간단한 영상편집 프로그램 정도는 다룰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완전히 문외한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 모둠활동을 할 때는 잘 하는 아이가 맡아서 하니 그래도 괜찮았는데, 개별로 학급 문집을 만들 때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뚜렷하게 보였다. 올해 학급문집은 더욱 업그레이드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 만큼, 올해는 작





년에 했던 엔트리, 햄스터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묶어 학년특색활동으로 이와 관련된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뛰어놀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구부정히 앉아서 휴대폰 게임에만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다. 30분이나 되는 중간놀이 시간에도 교실에서 잘 나가지 않는 탓에 넘치는 에너지가 서로를 향하면서 서로 괴롭히는데 쓰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모든 체육 시간을 전담 선생님과 함께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담임에게 1시간이 주어졌다. 이 시간과 아침활동 시간을 활용해 교실놀이, 강당, 운동장 놀이를 통한 체력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용히 공부할 때와, 신나게 뛰어놀 때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동학습 연구회 이끔이 선생님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놀이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보다 즐거운 놀이시간을 만들어야겠다. 또한, 놀이의 준비부터 놀이 과정, 놀이 후 정리까지 전, 중, 후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며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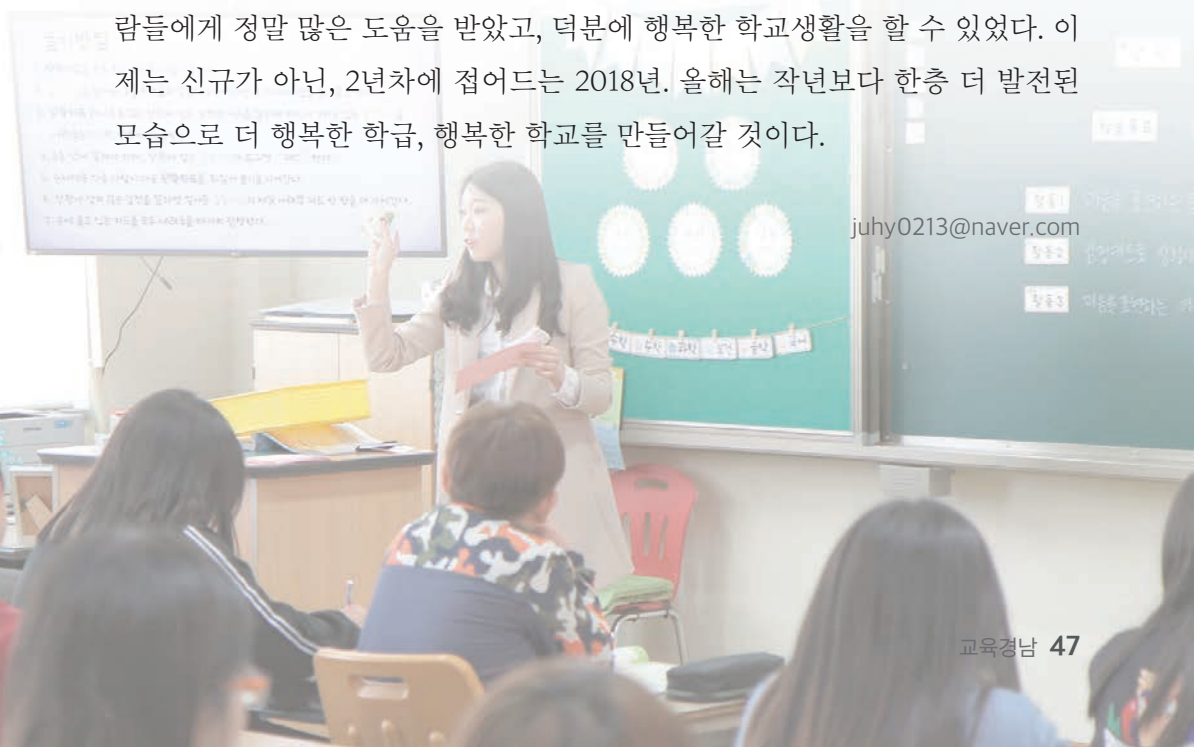
작년에 아이들과 이리저리 부딪히며 느낀 것 중 하나는 생각보다 아이들의 인간관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나의 말에 상대방이 상처받을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정표현에 서툴러 자신의 마음을 옹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사과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그래서 올해도 어!생기바(어 : 사실, 생각, 기분, 바람), 인사의약(인정, 사과, 의견문기, 약속) 등을 활용해 바람직한 행동기술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또한, 신뢰서클, 모둠활동, 발표수업 등을 통해 의사소통기술을 기르는 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들었던 연수들 중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는 고학년 담임인 나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활동 중 하나는 신뢰서클로 마음나누기였는데, 처음에는 ‘경청’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진지하게 참여하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게 되어 평화 공동체가 갖추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모두가 중심인, 수평적인 원 형태로 둘러앉아 차분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 좋았다. 아직 문제해결서클에는 도전해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신뢰서클을 바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서클을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길러보고 싶다. 그리고 고자질과 도움요청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갈등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지도할 것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고 했다. 교사가 지식의 전달자로서 기능하던 시대는 지났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배움’은 단순한 지식에 대한 학습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넘어 멘토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 공부이다. 그래서 교실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직접 설계하고 실천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구촌 문제’라는 프로젝트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두레장을 중심으로 학년다모임을 통해 나눔장터 운영방법을 계획한다. 각자 알뜰마당, 먹거리마당, 재능기부마당 등의 역할을 맡아 나눔장터를 열고, 그 수익금은 직접 뜬 아기모자와 함께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여 지구촌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고 성취감도 크다.

작년 한 해는 참 정신없이 지나갔다. 처음엔 무엇하나 익숙한 것이 없어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기만 했다. 당장 3월 2일 첫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새내기교사가 각 과목별로 교육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우리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내용을 수업에 적용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했겠는가. 행복학교 속 동학년이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많이 배웠고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아니더라도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비난받지 않는 안전한 공간,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학교가 참 좋다. 작년 한 해, 선생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많은 것을 함께 했고, 서로가 힘들 때 곁에서 토닥이고 격려해주면서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던 것 같다. 교장선생님이 해 주셨던 말씀처럼, 동학년 교사들이 서로 간 ‘관계’의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에 더욱 더 학생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더욱 나은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고민할 수 있었다. 학교와 교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학교가 행복해지는 것 같다. 작년에는 이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덕분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제는 신규가 아닌, 2년차에 접어드는 2018년. 올해는 작년보다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행복한 학급,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것이다.



juhy0213@naver.com

관계로 맺어진 신뢰, 배움을 통한 행복



—
홍현화
봉명중학교 교사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행복학교 워크숍’을 통해 2018년 행복학급의 살림살이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리 봉명중학교는 스몰스쿨제의 형태로 각 학년부를 중심으로 생활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과 프로젝트 등 전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 필요한 학급살이나 교육과정에 대해 같은 학년부 선생님들은 언제나 함께 고민한다.

이 맘 때쯤이면 나는 언제나 새 학급에 대한 기대감과 잘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매우 샘솟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 반면엔 지난 학급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또한 뒤따른다. 이러한 과정들은 운이 좋게도 행복학교 워크숍 중 학년 선생님들과의 서클 시간에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우리반을 향



한 나의 메시지는 ‘관계로 맺어진 신뢰, 배움을 통한 행복’이다.

‘관계맺기’는 3월 학기 초가 정말 중요하다. 이 시간이 1년의 우리학급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사이자 어른인 나 역시도 아이들을 처음 맞이하는게 여간 빨증하고 어색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땐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것이 상책이다. 3월 한 달만이라도 아이들 등교시간보다 10분 일찍 교실에 들어가 교실 맞이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상태를 읽는 데에 집중한다.

그리고 아침시간을 통해 간단한 몸 놀이와 체크인 서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녹여낸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서클을 진행하면서 내가 간과했던 점은 ‘관계 형성을 통해 마음이 열리면 표현도 된다.’라는 점이다. 학기 초 서클을 몇 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느껴지는 대답, 짧

은 대답, 같은 대답에 내가 먼저 백기를 들곤 서클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싶어한다.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말 편안해 졌을 때이다.

서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단한 사제동행의 의미를 지닌 프로그램은 학기 초에 운영하기 좋다. 반 아이들과 ‘대형 비빔밥 만들어 먹기’를 한 적이 있다. 각자가 비빔밥에 들어갈 만한 적당한 음식들을 조금씩 가져온다. 나는 오직 33인분의 밥과 고추장, 참기름만 준비했다. ‘과연 이 이상한 조합들이 음식이 되나요?’라고 애들이 묻는다. 모든 음식들을 적절히 섞어 아이들은 숟가락만 들고 맛을 본다. 꽤나 괜찮음을 넘어 기가 막힌 맛에 아이들 모두 놀란다. 그리고 나는 한 마디 덧붙인다. ‘33명의 나물들이 모여 이렇게 멋진 맛을 내는군요, 이게 바로 너희고 우리들이야.’ 물론 아이들은 나중에 나물에 밥 비벼먹었던 기억만 떠올린다.

‘신뢰’는 관계 맺기를 통해 저절로 이루어진다. 쑥쑥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시점이 되면 ‘학급 자치 조직도’를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100%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흥미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속하게 된다. ‘우리 학급에서 내가 1년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한다. 그래서 우리 학급에서 필요한 부서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부서 이름도 가지각색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책임에 대해서 학급 구성원들은 대부분 신뢰한다.

여기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부서는 중3 졸업반에서 만들어지는 ‘졸업앨범부’이다. 우리학교는 특별히 문집형 졸업앨범을 제작한다. 그저 학생들의 사진만 찍혀서 나오는 형태의 졸업앨범이 아닌, 중학교 생활 전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모여져 입을거리가 가득한 앨범이 만들어진다. 글쓰기에 재주가 있는 학생,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부서원이 되어 일 년 간 여러 에피소드들에 대해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며 일 년 간 우리반의 이야기들을 모아 문집형 졸업앨범을 완성하게 된다.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면 학급에서 아이들은 ‘우리 반은 정말 편안

하다. 친구들도 편안하고 선생님도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침 그 시기에 어버이날이 가까워져 오길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겉으로만 보면 마냥 밝고 즐거운 아이들인데, 아직 다 자라나지 않은 마음에는 모두가 여러 상처들과 고민들이 있었다. 그 아픔을 나누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학급이 되어 있었다.

관계로 맺어진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이 모든 것이 ‘배움’을 향함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학급이었으면 한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똑똑하고 잘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이다. 학급 아이들을 통해 깨달은 점은 선생님으로부터의 배움보다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배움이 더욱 값지고 크다는 것이다. 공부와 성적만이 주목 받는 학교였더라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그 존재감을 상실했을까? 교과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둠활동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프로젝트 수업이나 학교 행사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찾고 책임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모든 학급의 작은 행사나 교내 행사까지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꾸려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아이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하나의 역할을 해나간다. 각자의 역할을 파악한 학급 친구들은 나





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서로서로가 역할에 대해 지지해 준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친구는 친구들의 신뢰로 말미암아 대단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

모든 중학교 생활들은 졸업식을 통해 마무리가 된다. 그저 졸업장을 받고 사진을 찍고 끝나는 졸업식이 아닌, 우리는 각 학급에 어울리는 ‘작은 졸업식’을 진행한다. 작년 우리 반 아이들도 학급 회의를 통해 가장 뜻 깊은 우리만의 졸업식을 위해 열심히 고민했다. 먼저는 33명의 아이들이 한명씩 앞으로 나와 졸업 소감문을 발표했다.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이 한 자리에 모인 곳에서 자신의 중학교 생활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은 바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졸업식 일주일 전부터 부모님들께 문자로 졸업 축하 메시지를 부탁드렸다. 갖가지 방법으로 전달해주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모든 부모님들의 같은 마음을 깨달았고 그 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작년의 이야기들을 통해 올해는 어떠한 학급이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결론은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학교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수업시간에도 패배감이나 열

등감 속에서 묻혀있는 것이 아닌 각자의 특성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찾아 각자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규교사 1, 2년 차에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경계 세우기의 그 선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애정을 너무 허물없이 주어 버려 내가 상처받아버린 한 해가 있었고, 반면 애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 선 채 ‘선생님다움’만을 내 세워버리다가 더 이상 아이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한 해도 있었다.

물론 담임의 학기초 의지와 계획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도 아이들도 모두 사람인지라 많은 시간과 만남 속에서 그 진심 또한 서로가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월에 새로 만날 아이들 생각에 많은 설레임과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고민한다. 우리가 함께 만나 어떠한 많은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올해에는 ‘대추 한 알’이라는 장석주씨의 시처럼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왔다 같지라도 오직 ‘사랑’으로 맺어지는 붉은 대추 한 알이 나도 되고 아이들도 되는 우리 반이 되었으면 한다.

hong0146@naver.com



존중·소통·협력·배움의 가치 담아



—
윤나라
아림고등학교 교사



2018년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첫 담임을 맡던 설렘과 걱정이 살며시 밀려온다. 2015년 처음 만난 아이들과 담임으로 함께 3년을 보냈다. 주변 선생님들은 맡았던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또 새로 오는 1학년 아이들과 만나 서로 부딪히는 그 힘든 과정을 또 하고 싶냐고 물으셨지만 어째서인지 그 힘듦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남은 것은 좋은 마음뿐이고, 아이들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더 큰 기쁨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까이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담임을 하는 것이 좋았다. 올해는 지난 몇 년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아이들을 만난다.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



들을 생각해 본다.

새 학기 1학년 비전을 ‘공동체 세우기’로 정했다. 학교의 비전에 따라 ‘존중’, ‘소통’, ‘협력’, ‘배움’이라는 주요 가치들을 학급 활동에 담아 아이들이 이 가치들을 체득하면서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학급 운영의 목표이다.

행복학교인 우리 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학년이 이를 동안 ‘적응교육’ 활동을 한다. 특히, 학교와 선생님과 친구 등 모든 것이 낯선 1학년들에게는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활동이다.

입학식 후 담임교사와 반 아이들의 첫 만남은 ‘신뢰 써클’로 시작한다. 모두를 마주하고 둘러 앉아 선생님과 친구들의 설렘, 걱정, 기대들을 듣는 그 순간은 그저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



실만으로도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가 될 것이다. 학급 활동으로 신뢰 씨클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에 대해 알 수 있고, 평소 잘 교류하지 않는 아이들의 생각도 들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도 할 수 있다. 신뢰 씨클을 통해 학급이 모이는 첫 시간에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모두가 동등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일 수 있기에 신뢰 씨클 질문에 앞서 경직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서 간단한 몸놀이를 한다. 둘러 앉아 몇 번의 자리 바꾸기 게임을 하다보면 어느새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전에 처음으로 반 아이들과 신뢰 씨클을 했을 때 몸놀이를 생략한 것이 실수였는지 그 아이들과 신뢰 씨클을 할 때 책상을 밀고 동그랗게 모여 앉히기부터 힘들어 씨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씨클에 대한 부담감을 선생님들과의 신뢰 씨클을 통해 극복했다. 뭐라고 말할까에 대한 부담보다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올해도 창체 시간을 활용한 학급 신뢰 씨클을 여러 차례 계획하고 있

매년 담임을 맡게 되면 아침 활동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다. 새 학기 첫 날 첫 단추를 잘 꿰어 아이들이 신뢰 씨클을 자기를 표현하고 친구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낮선 장소는 사람을 경직시키고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 학교는 ‘口’자 배치로 4층 건물 두 동으로 되어있어 처음에는 위치나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아이들이 학교를 빨리 친숙한 장소로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학교투어를 계획했다. 담임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이 짝을 이루어 반 아이들과 함께 학교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사용하게 될 시설들을 안내해준다. 씨클이 아이들끼리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면 학교투어는 아이들과 낮선 학교 건물을 연결해 주는 활동이다. 1학년을 보낸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학교투어를 많이 이야기한다. 누구나 낮선 여행지에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현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듯이 낮선 학교를 친절히 안내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사소하지만 학교 투어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함께 아이들 기억 속에 남으리라 생각한다.

매년 담임을 맡게 되면 아침 활동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올해는 ‘마음의 신호등’과 ‘감사일기 쓰기’를 해볼 계획이다.

‘마음의 신호등’은 그날 아침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초록, 노랑, 빨강 신호등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활동이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다소 유치할 수 있지만 이전 학급들을 생각해 보면 매일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신호등에 모두 이름을 붙이고 나면 몇몇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했는데 이유를 말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좋은 일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기뻐할 수 있었고 빨간불에 이름을 붙인 친구들을 위해서는 하루 동안 더 배려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괜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다.

‘감사일기 쓰기’는 아이들이 전일부터 아침까지 있었던 일들 중 감사한 일들을 몇 가지 쓰는 것이다. 읽어 보면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가족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 그런 사소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 또 개인의 성향이 잘 드러나 학기말에 행동발달 및 특기사항을 기록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활동을 할 때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알아가고 공동체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한 가지 더, ‘학급 갤러리’를 운영하고 싶다. 아이들의 활동사진을 수시로 찍어서 학급에 게시하는 것이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너무나 예쁜 순간들이 있다. 무엇인가에 열중하거나 여러 아이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장면을 꼭 담아두고 싶어진다. 아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여기저기 보여주고 싶다. 올해 졸업식에 3년 동안의 활동사진을 모은 졸업영상을 만들어 상영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추억할 수 있었고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새로 만나는 아이들과도 그런 추억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싶다. 물론 자신이 나온 사진을 다른 아이들이 보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너무나 예쁜 모습이기에 부끄러워말라고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또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된다. 경험이 부족한 내가 안심하고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는 동료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고민하고 교육과정 속에 잘 담아내기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한다. 아이들에게만 존중, 소통,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그러한 가치가 담겨있다. 내가 행복학교인 아림고등학교에 와서 함께 배우고 교사로서 성장한다고 느끼는 이 벅찬 마음을 우리 아이들도 학교생활을 통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nmr0125@naver.com

봄 이야기

2018. Spring story EDUCATION GYEONGNAM

| 특별기획 | 민주시민교육 우리학교는

- 060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개선 방안
김영희 |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066 학급규칙 정하기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구혜숙 | 평산초등학교 교사
- 072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 - 학교 문화의 혁신
김윤성 | 외포중학교 교사
- 078 소통 · 협력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이은영 | 세종고등학교 교사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개선 방안



김영희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철학은 사유의 도구와 방법에 관한 학문이라고 한다. 그러한 철학적 사고는 익숙한 것이나 자명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근세 철학은 자연과학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아 신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을 정립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 결과 이성과 감각을 도구로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사유방법으로 세계를 재해석하였다. 그러한 근세철학은 경제혁명(물질)인 산업혁명과 절대왕정에 대항한 정치혁명(사상)인 시민혁명으로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근대사회인 자본주의를 도래하게 하였다. 이는 민주정치로 급속하게 이어지게 되었다.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자본주의 사회에는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빈부의 계급 존재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였다. 사회의 부를 집중한 기득권 세력은 시민의식의 성장과 성숙을 지켜만 보지 않았고 최대한 변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과시즘, 나치즘, 군국주의 같은 잘못된 퇴행적인 사회변화의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그 결과 세계대전을 겪게 되었고,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하고, 시민이 시민의식으로 무장하여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가 등장한다. 익숙한 말이지만 왜 ‘민주공화국’이어야 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정은 지배받는 자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이다. 즉 인민에 의한 지배이다. 국가의 형태는 지배형태와 통치형태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지배(domination)와 통치(government)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지배는 대상을 복종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통치는 주권을 행사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지배형태는 지배자의 수에 따라서 1인 지배체제인 독재군주제, 소수 지배체제인 귀족제, 다수지배체제인 민주제로 나눌 수 있다. 통치형태는 지배방법으로 집행권과 입법권이 분리된 공화정과 입법이 집행 권력에 의해 전횡되어지는 전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히틀러의 나치정권은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을 갖춘 민주정부이지만 통치형태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통솔하는 총통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민주총통제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은 반드시 민주와 공화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의 권리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균형 있게 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동시에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처럼 의

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명제는 아니다. 나의 권리만큼 상대방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며, 의견의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결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공동체가 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시민교육 방법도 지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삶과 생활 속에서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직시하면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과정이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민주시민이 될 수는 없다. 시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는다. 시민은 ‘형성’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은 단지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해’, 교육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실천 모델은 3C로서 학교문화를 통한 시민성교육(Culture),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시민성교육(Curriculum), 지역사회 및 청소년시설을 통한 시민성교육(Community) 이다.

학교 문화(Culture)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자치의 근간인 학교자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소통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Curriculum)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Community)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학생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실천 모델

먼저, 공립형 대안학교인 창원 태봉고등학교는 ‘공동체회의’라는 자치 회의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소통과 공감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이 공동체회의는 모범적인 민주적 학교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초 제도로서, 이를 통해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민주적 관용과 존중, 경청, 대화, 토론의 가치와 습관을 익히며 단순한 다수결주의를 넘어 ‘숙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장(場)을 형성한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김해 봉명중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교과 수업 그 자체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시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억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규정을 학생들 스스로가 제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채택하여 준수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같은 사례는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이 핵심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진해 제황초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별로, 그때 그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끼리의 논의 공간, 일종의 ‘공론장’을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과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론장 형성 모델은 학생들이 이런 민주 정치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라는 배경 위에서는 어떤 노력들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비 등에 휘말릴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인 ‘정치 교육’이 그 교육의 원칙과 관련하여 따르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11월에 독일의 소도시인 보이텔스바흐에서 교육이론가와 정치교육학자들이 모여서 정치교육에 대해 3가지 합의한것을 말한다.

1) 강제 또는 교화의 금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논쟁성에 대한 요청: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3) 이해관계의 인지(행동지향): 학생들은 특정한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주어진 정치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바로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 교육의 현장에서 정치적 좌우 갈등을 이겨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또 통일 이후 오늘날까지 성공적인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번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경남지역 교사들의 인식

경남지역의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민주시민교육의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를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권위적인 학교 운영의 문제와 함께 교사조차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

라의 현실에서 학생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토론이나 논쟁 방식의 수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특히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업주제와 학생들의 삶을 연결해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언

첫째, 경남교육청은 우선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 팀이나 조직을 꾸려야 한다. 그래야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며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동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서울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은 의미 있다.

둘째,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원연수가 필요하다. 논쟁적 주제 접근법은 단순히 개별 교사의 주관적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그리고 표준적인 안내서 없이 교사들이 혼자 책임을 지고 다 이끌고 가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셋째, 학교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교무회의에서조차 교장의 전달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식의 관행이 일반화된 상태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언감생심이다.

넷째, 경남형 민주시민교육 실천 모델 개발 보급 및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둔 인성교육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급규칙 정하기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구혜숙
평산초등학교 교사

3월의 시작

3월 2일, 아직은 봄도 그렇다고 겨울도 아닌 날씨처럼 마음과 몸이 덜 풀린 채로 새 학년을 시작했다.

첫째 날, 행복학교로 지정되고 입학한 아이들이라 그런지 3학년인데도 작년 아이들과는 달리 담임교사가 앞에 있어도 웃으며 스스럼없이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 이처럼 자유분방한 아이들과 1년을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학기초 적응활동을 시작하자 언제 떠들었냐는 듯이 집중하여 자신의 기분점수와 마음의 색깔을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즐거운 놀이와 게임을 통해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에게 마음이 열린 것 같았다.

둘째 날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인 학급규칙을 정하였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급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과제를 주었다.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 학급규칙 정하기

먼저 우리가 학급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에 대하여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둠별로 포스트잇을 주고 덕목을 쓰라고 한 뒤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을 3가지만 칠판에 붙여보게 했다. ‘바른말 쓰기, 질서 지키기, 사이좋게 지내기, 배려하



기’ 등 또래의 수준에 맞는 것들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의견나누기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모둠별로 진지한 얘기가 오고갔다.

“바른 말을 쓰려면 욕을 쓰지 않고 어제 배운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해야겠지?”

“사랑해, 고마워, 도와줘 등 긍정적인 말을 써야 할 거야.”

아이들의 의견에 고개도 끄덕이면서 순회 지도를 하며 모둠토론을 지켜보았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근데 배려가 뭐예요?”

수찬이의 질문에 우리는 다 같이 가치사전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찾기 시작했다.

배려란, 아기 동생이 곤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떠들지 않고 조용조용 노는 것.

배려란,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생각해 행동하는 것.

“배려란 너무 행복한 말이에요. 선생님”

준수의 말에 우리 모두 환한 웃음꽃을 피웠다. 모둠별로 정한 우리 학급의 규

칙을 4절지에 꾸며서 만들어 게시하고 월별 학급회의 시간에 우리가 정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활동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활동을 마치고 스스로 학급규칙을 정해본 느낌이나 생각나누기 시간을 가졌더니 2학년에서 막 올라온 아가들이라 생각했는데 나름 깊은 말들이 나왔다.

“우리가 정한 규칙이니까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교실에서 조용히 말하고, 복도에서 뛰지 않기 등은 힘들 것 같아요. 아! 어찌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조금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학급규칙을 정하다니 뿌듯하고, 내가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 좋아요.”

다양한 생각 속에 우리학급이 일 년 동안 생각해야 할 많은 문제들의 근접한 답이 있었다. 우리의 학교생활 속에서 도덕을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3학년 교육과정과 접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실천중심 인성교육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3학년 도덕을 교과서 학습이 아니라 가치덕목을 실천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자는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도덕 교과서의 성취기준에 맞는 실천덕목을 월별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3~4월은 나의 소중함을 알고 복도에서 뛰지 않기를 실천하기로 하였고, 우리학급이 정한 규칙과 연계하여 같이 실천하기로 하였다.

도덕과 첫 시간, 교과서 없이 뭘 할까? 기대에 찬 아이들의 눈빛에 난 웃으며 ‘복도에서 뛰지 않기’ 캠페인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지 먼저 의견을 물어보았다. 의욕에 찬 아이들을 보며 자유스럽게 모둠끼리 의견을 나눠보게 했다.

모둠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보니 첫째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복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학년의 동의를 받아 복도통행 모습을 촬영하기로 하였다. 초상권이 있으니 머리 아래로만 촬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촬영한 영상은 교실에서 보고 고칠 점은 무엇인지, 왜 뛰어서 복도통행을 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둘째 한 달 동안 바른 복도통행을 실천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1분간 같이 마주서서 서있는 벌칙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물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친구의 이름도 교사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교사는 아이들 개인별로 규칙을 지키지 않은 횟수를 기록하기로 하였다.

셋째 우리 학급뿐 아니라 다른 학년과 친구들도 바른 복도통행을 하게 하기 위해 캠페인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서 학년게시판에 전시하기로 하였다.

넷째 한 달 동안 실천을 한 뒤 다시 사진촬영을 하여 우리가 얼마나 바른 복도통행을 하고 있는지, 개인별로 실천하지 못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바른 복도통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할 점들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바른 복도통행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아이들은 복도에서 친구들과 부딪혀 다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천천히 걷다보니 인사도 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다음 달에 정한 규칙과 덕목을 실천하면서, 바른 복도통행도 꾸준히



우리가 만든 규칙을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실천한다면 좋을 것 같고 꼭 지킬 거라는 다짐들을 하였다.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실천하며 우리가 정한 것을 우리가 지킨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배움이었다.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면 학교의 규칙을 지키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규칙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은 실천이 모여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린 많은 것에서 보아왔다.

바른 복도통행, 사랑의 말 전하기, 자주적인 생활, 스스로 사물함. 책상서랍. 신발장 정리하기 등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우리가 만든 규칙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주기를...

학급회의 시간에 우리가 정한 학급규칙을 실천한 마지막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월별로 잘된 점과 더 노력해야 할 점들을 토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점은 무엇일까 토의해 보았다.

월 별로 정한 규칙은 비교적 잘 지켜졌으나 다음 달 규칙으로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지키기가 힘들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가 꾸준히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초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도 정착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노력이 첫걸음이 되어 더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 주었으면 좋겠다.

koosam@hanmail.net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 - 학교 문화의 혁신



김윤성
외포중학교 교사

민주시민교육, 모든 교사의 소망

사회와 도덕을 지도하고 있는 나에게 활동중심수업은 언제나 정답 없는 과제를 던져준다. 토론과 토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배움중심수업, 과정중심 평가와 연계해 보려는 시도는 미래교육의 핵심역량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을 교실수업의 변화에 적용시켜 미래지향적 교수-학습의 틀을 완성해 보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민주시민이 추구하는 방향

정보기술의 획기적 진전은 필연적으로 분업과 협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와 편성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지식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민적 자질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이면서 야구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본교에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의 한 단



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교의 사례가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미래교육의 작지만 의미 있는 시사점이 되기를 바란다.

교가와 교표 제작, 민주적 학교 문화의 상징이 되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의 저서 ‘아이가 먼저다’ 머리말에는 ‘수학시간은 조용하고 도덕시간은 시끄럽다.’라는 구절이 있다. 재미있는 수학교육, 토론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교수-학습방법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재미있는 도덕시간을 화두로 고민 중인 나로서는 또 다른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구절이라 생각되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두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학교는 일반 학생들보다 야구부원이 많다는 점을 핑계 삼아 학생자치활동 영역,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합의 등 민주적 학교 문화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작년 ‘개교 48주년 기념식 및 새 출발을 위한 다짐 한마당’ 행사를 제

안·기획하고 집행해 나가면서 기존의 학교 문화를 반성하게 되었다. 학교 비전 선포, 교가 재제작, 교기의 제작, 교표 제정, 다짐 퍼포먼스 등이 중심이 된 한마당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 주체들 모두가 민주적 사업 집행이 얼마나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고, 급기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학교 교육주체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과들이 민주적 학교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교가와 교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들과 교직원의 아이디어가 밑바탕이 되었다. 교직원과 학생이 힘을 모아 구성한 초안은 전문성을 갖춘 내부 추진단에게 전달되었고, 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시안을 마련하였다.

교가는 구성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민요풍, 발라드풍, 행진곡풍의 세 가지 버전의 곡을 마련하였다. 가사도 여덟 가지 선택지를 제안하여 학생과 교직원,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는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으로 자기주도적 역량 커져

학부모와 이사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과정을 거쳤다.

교표 제작 과정 또한 비슷한 절차로 진행하였다. 구성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단에서는 네 가지 시안을 만든 후,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선호가 극명하게 대립하였다. 10여 차례의 토론 끝에 학생들의 제안을 우선하되, 색상은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 속에서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가는 학교문화는 본교에 허인수 교장이 부임한 이후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표

표1

연번	교재 속 주제	본교 시민성 목표	민주시민성 영역
1	시민은 선거로 말합니다.	본교 학생회 선거와 지방자치선거 교육에 활용한다.	권리와 의무
2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요?	자유와 보장과 한계를 학교공동체에 적용한다.	자유와 규정
3	연대는 실천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할 내용을 파악하여 실천에 옮기기	희생과 봉사
4	사람과 노동은 하나입니다.	행복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진로체험활동에 적용한다.	행복과 진로
5	미디어,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방송과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한다.	올바른 정보
6	평화로운 세상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깨끗한 환경의 보전 의식을 기른다.	평화와 환경보전



현하게 하는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으로 자기주도적 역량이 커졌기 때문이라 믿는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학교와 외포만 살리기 등 환경보전, 예술 동아리 활동, 교내외 청소, 불우 이웃돕기, 폐휴대전화와 동전모으기 등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까지 학생들 스스로 실행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의 출발, 학급 규칙 제정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학습공동체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실천하는 학교 문화의 정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이에 학급의 규칙을 제정해 보는 것부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수업에 적용해 보고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이르렀다.

교실수업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학교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이러한 성과가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표1에 나타나 있듯이 교육과정상 민주
시민교육의 교재를 모두 다루기가 시간
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본교의 현황에
맞추어 적용하려 하였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가 주제를 정해주는 활동중심
의 교재이다. 따라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글감이 제시하는 내용을 보아 삶을 반
영하는 글쓰기부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글쓰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글쓰기와 의사소통능력이 길러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 모두 존중해야

민주시민교육이 기본적인 자기주장에 머무는 단편적 차원의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 나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 모두 존중해야함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일 것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미래지
향적 소통 역량을 지닌 융합형 인재의 기본 품성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
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
요한 ‘진짜 공부’라 생각한다. 교실수업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학교 문
화의 변화를 이끌고, 이러한 성과가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
기를 기대해 본다.

yunsung001@hanmail.net

소통·협력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이은영
세종고등학교 교사

학교 현장에서 느낀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에게 평소 사회시간이나 법과정치 시간에 민주시민에 대해 물어보면 보통의 답들은 아래와 같다.

Q&A

Q. 여러분 민주시민이 어떤 시민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금방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해 보세요!

A1. 착한 시민이요, 자유로운 시민이요!

A2.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한 국민이요!

A3. 국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요!

A4. 권리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이요!

부족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렇듯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실제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통계치가 있다. 한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이론을 가르치고 가치를 주입시키지만 실제 본인의 모습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 반성해 본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서 무엇보다 먼저 혁신



해야 할 것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와 교사 문화를 바꾸고 교사회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바탕 위에 제대로 된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봐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생활 속에서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민주시민으로 대우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주시민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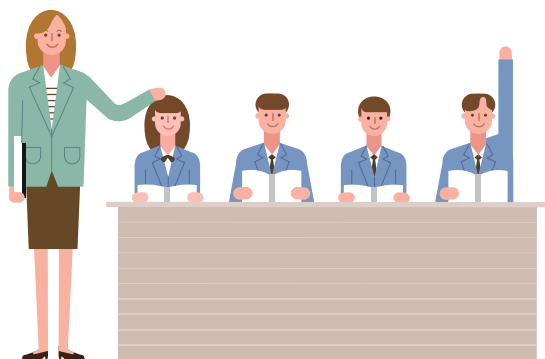
20년의 교직 생활 동안 사회과 교사로서 항상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사회과 교육 목표를 마음의 짐처럼 두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나날이 쌓여만 가는 업무와 교과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해내느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교육 목표를 실천할 방법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한 해 한 해가 흘러 버렸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본다. 2017학년도에는 우리 교직 사회에 많은 변화와 혁



신을 요구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으로의 혁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교육 환경 마련 등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어쩌면 사회는 우리 교사들에게 이전보다 더 완벽한 교사상을 바라고 있는 듯 해 한 편으로는 가슴 답답함이 느껴진다. 그 답답함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 정체되기 보다는 변화의 큰 흐름에 조금이나마 따라가 보고자 또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했던 ‘민주시민’ 교재 활용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수 담당 선생님께서부터 많은 격려와 팁을 얻게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며
교실과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 교재 활용 연수에게 얻은 정보와 느낀 점

지금까지 나의 수업에서 시민 교육과 관련하여 다루었던 주제들은 청소년 인권, 기본권, 시민의 참여, 다양성과 차이 정도였다. 인권과 시민, 다양성과 차이, 공감과 연대, 자연과 환경,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시민 사회와 안전에 대한 9가지 주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민주시민 교재를 접하게 된 것은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시민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모두 9가지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막연하지만 나의 수업에 대한 구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수업 방법 면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지식을 주입시키는 수

업이 아닌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본인이 직접 체득해야 하는 수업이니 당연히 강의식 수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교과 융합 형 프로젝트 수업, 현장체험 · 견학, 모의 기획, 모의 역할 학습 등이 적합하다고 한다. 즉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며 교실과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에서 실천해 왔던 민주시민교육

2017학년도 사회, 법과 정치 시간에 민주주의와 참여를 주제로 한 단원에서 사회참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3차시 프로젝트 수업으로 설계하였는데 1차시에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참여 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구해 보고 2차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사회 참여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 또는 가족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방법에 대해 참여 동기,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주었다. 마지막 3차시에는 자신 또는 가족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방법을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구술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 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 참여 방법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성인이 되면 ‘선거에 꼭 참여하겠다. 재능 기부를 하겠다. 정당의 당원으로 정치 참여 하겠다. 시민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겠다.’ 등등의 자신만의 실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나름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론만으로 그쳤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민주사회의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도 느끼게 해 주었던 의미 있었던 수업이 되었다.

앞으로의 실천 계획

2018학년도에는 지금까지 교과 수업에서 진행했던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보완해서 계속 진행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해 볼 계획이다.

2017학년도 3차시 정도에서 직접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2018학년도에는 17차시, 1단위 정도의 민주시민 교육 시간을 확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해 볼 계획이다. 아래는 2018학년도 실천할 민주시민 교육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에서 제안한 9개 영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표이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계획

영역 내용	내용 요소	대상 학생	수업 방법	활용 시간
인권과 시민	기본권, 권리 제한	3학년 인문반	쟁점 토론 수업, 글쓰기	법과정치(3시간)
다양성과 차이	같은 사람, 다른 피부색	2학년 상경반 2학년 인문반	조별 발표 수업	사회문화(3차시)
공감과 연대	지구촌 차원의 공감과 연대	1학년 사회 중점 반	쟁점 토론 수업, 글쓰기	사회탐구방법 (3차시)
자연과 환경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와 참여	시민의 참여	2학년 인문반 2학년 상경반 3학년 인문반	프로젝트 수업	사회문화, 법과정치(3차시)
노동과 경제	기업과 사회책임	2학년 상경반 3학년 인문반	쟁점 토론 수업, 글쓰기	실용경제, 법과정치(2차시)
언론과 미디어				
시민 사회와 안전	안전, 책임	전 학년	역할극	창체 자율활동 시간 학생부와 협의하여 (3차시)
합계 : 17시간				교과수업 : 14시간 창체시간 : 3시간

제언

2017학년도 사회참여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민주시민 교육을 2018학년도에 좀 더 다양한 주제로 확대하여 어떠한 역량(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이 시점에서 짚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래서 목표 역량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 어떤 사회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을 제시된 해결책과 논리적으로 관련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어떤 사회 문제를 그것이 가진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증거가 대립되거나 바람직한 가치들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할 경우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특정 입장에 서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가?
- 자신이 소속된 조직체 안이나 밖에서 정당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위와 같은 능력을 모두 갖춘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 중 한두 개의 역량이라도 키울 수 있다면 충분히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의 주제 중심 수업이 낯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하자고 감히 말씀드린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굴곡진 역사에서 보이듯 함께하는 힘은 항상 민주시민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었다. 우리 경남 선생님들께 미래를 살아갈 우리 제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서 키워낼 수 있는 환경 마련을 함께 실천해볼 것을 적극 제안한다.

lee46016@hanmail.net

봄 이야기

2018. Spring story EDUCATION GYEONGNAM

| 생생교육 |

086

찾아가는 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블루오션으로 나만의 꿈을 찾는 학교
박도영 | 편집위원

098

이런 동아리
양산중학교 '나도 작가'
김보리 | 양산중학교 교사

104

우리 학교는
행복한 바깥놀이 인성교육
송유현 | 창원한별유치원 교사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최철원 | 갈곡초등학교 교사

행복으로 더불어 크는 학교
김남희 | 함안여자중학교 교사

지구촌 수업, 그레잇!
신현구 | 밀성제일고등학교 교사

128

브라보 경남교육!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우승
박경희 | 남해여자중학교 교사

134

연수후기
배움중심 교사수업 국외 교류 연수 후기 - 일본
진영학 | 감계초등학교 교사

142

연수체험기
해외교육탐방 후기 - 북유럽
김성준 | 아라초등학교 교사

152

교직실무
2018년 도의회 운영 및 조례 제·개정 바로 알기
이지연 | 경남도교육청정책기획관 의회법무담당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나만의 꿈을 찾는 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글/ 박도영 편집위원 사진/ 창원중앙고등학교 제공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잘 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중학교 때는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요즘 세상. 그러나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무조건 ‘대학 진학’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고등학생의 당연한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꿈’을 외치는 학교가 있다. 그렇다고 성적이나 진학을 도외시킨 채 꿈 찾기 활동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학교 성적도, 진로 탐색도 모두 ‘성장’의 한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를 찾았다.



‘2030 세대’를 위한 미래핵심역량 강화 시스템

창원중앙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나 활동에 있어서 ‘미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학 진학’이지만 창원중앙고등학교는 대학 진학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한다. 지금부터 10여년 후인 2030년,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될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진짜 교육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모두가 공감하지만 막상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할 수밖에 없었다. 입시를 위한 공부에만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미래 교육은 사치라는 생각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처음 변화를 시도할 때의 어려움만 견뎌 내면 점차 익숙해지기 마련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인식 전환을 시도했다. 그 계기가 되어준 것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과 강영호 교장의 취임이었다.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를 꾀한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의 시스템화였다. 학교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어캐너머로 배우듯 일관성 없이 이뤄지는 업무 인수인계의 문제점을 직시한 강영호 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시스템화 해 나가기 시작했다. ‘계획-실행-결과도출’이라는 과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체계화시키고, 이를 책으로 만들어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교과 활동-비교과 활동-행사 활동’에 따른 각각의 ‘창원중앙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시작부터 진행의 모든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책 한 권에 모두 담아냄으로써 누구든 손쉽게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교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강영호 교장은 ‘수학여행’을 대표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의 예로 소개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미래 진로와 연관된 테마를 설정하고 9개 교과와 수업 중 테마와 연관된 내용을 찾아 미리 공부하고 찾아가 봐야 할 장소나 여행 코스를 짜기도 한다. 직접 자신이 관심 있



는 분야와 관련된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한 다음 여행길에 오르면서 각 코스별, 주제별 미션을 수행하며 공부하고 계획했던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실행’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낮에는 여행지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션 수행을 한 뒤 밤에는 위크북에 정리, 기록한다. 이 활동은 개인별로도 이뤄지지만 비슷한 주제를 선택한 친구들끼리 소그룹을 형성해 이뤄지기도 한다. 이 같은 활동은 해마다 빛나는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여행지마다 필요한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직접 제작, 배포하던 것을 QR코드 제작으로 대체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한 예이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보고서 작성, 포스터 만들기,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정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서로 배우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책으로 발간되어 해마다 수학여행 계획 수립부터 여행 마무리까지가 시스템화 되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특별한 수학여행은 한국 과학 창의재단에 체험활동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미래 개척을 위한 블루오션을 찾아라!

창원중앙고등학교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블루오션이다.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뜻하는 블루오션. 매일 매일이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을 넘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지금 인기 있는 직업이라도



△ 강영호 교장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더 많은 변혁을 몰고 오면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생겨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같은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창원중앙고등학교는 2년에 한 번 씩 ‘이색학과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생들이 무조건 성적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 행사는 직접 대학에서 학교로 찾아와 학과별 부스를 설치하고 학과에 대한 소개와 향후 진로, 관련 체험 활동이 가능한 여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자리다.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의 학과 3개를 골라 체험 활동을 하며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오랫동안 진학지도로 해 온

교사들마저도 ‘이런 학과도 있었나?’하고 생각할 정도로 특이하고 낯설기까지 한 이색 학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 과연 지금의 학생들에게도 좋은 직업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이색학과 박람회는 단순히 1회성 행사로만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평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방향에 따라 수업부터 동아리 활동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꿈을 설계하고, 교사들은 이에 맞는 학생 지도와 수업을 실시한다. 학부모들은 1년에 6회 가량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관련 정보부터 이색학과, 효율적인 사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정보를 얻으며 자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 그 결과 학생들의 진학을 향상은 물론 진학 이후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진학 지도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된 것도 큰 장점이다. 성적에 따라 진학 가능한 이색학과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게 되면서 폭넓은 진학지도가 용이해지고, 학생들 역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함께’의 가치를 알아 가는 교육

창원중앙고등학교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 ‘다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 ‘자기 진로와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움중심 수업 실현을 위한 수업방법 개선 및 평가방법 개선’,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교내 연구 발표 대회 개최’, ‘또래학습을 통한 다함께 가기’, ‘협동심과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사제동행 3대 명산 등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유네스코학교 운영’, ‘자율·심화 동아리 활동을 통한 블루오션 찾기’,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이색 학과 박람회 운영’이라는 7개의 교육 중점 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창원중앙고등학교만의 특별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사제동행 3대 명산 등반이다. 사제동행 3대 명산 등반은 1년에 한 번씩 전교생이 국내 3대 명산 등반에 참여하는 행사로, 1학년은 지리산을, 2학년은 한라산을, 3학년은 덕유산에 오른다. 등반 행사는 보통 5월에 개최하는데, 도심의 5월은 이미 봄을 넘어 여름이 다가오려고 하는 계절이지만 산의 5월은 초입부터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4계절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상 상태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기간에 산을 오른다고 한다.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3년 동안 국내 3대 명산의 정상을 모두 오르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인 기회이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등반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오를 산의 식생이나 환경 등에 대해 미리 배우고, 등반 당일에는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교육을 통해 한 번 더 자신이 미리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보를 얻게 된다. 동창회 선배들 중 등반 전문가들에게 도움도 받으며 선후배간의 정도 돈독히 쌓는다.

등반 행사에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더해 더욱 의미 있는 일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작은 봉지에 흙을 담아 가서 훼손이 심해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천왕봉에 흙을 부어 보태기도 했고, 1미터를 걸으면 10원을 기부하는 ‘빅워크’라는 기부 프로그램을 신청해 100만 원의 기부금액을 확보, 봉사활동과 함께 100만 원치 물품 기부를 하기도 했다.

3대 명산 등반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른 학생들의 인성 함양이다. 등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8부 능선쯤에 도달하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 끌어 주고 밀어 주면서 힘을 합해 산을 오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서로의 도움으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은 겪어 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



다. 먼저 도착한 친구들은 뒤이어 도착하는 친구들에게 힘찬 박수로 격려를 하고, 마지막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완등의 기쁨을 나눈다. 함께 땀 흘리며 산을 오르다 보면 평소 어색했던 사이도 친해질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학교폭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후문이다.

등반 후에는 활동에 대한 글을 써서 기록을 남기고, 이 경험을 성인이 되었을 때 실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까지가 전체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산을 다녀온 뒤에도 그 여운은 오래 남는다. 산 정상에서 다 같이 찍은 기념사진을 학교 현관에 전시하고 학교 역사관에도 보관하는데, 사진 앞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학생들부터 학교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사진을 보고 자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학부모까지, 등반 사진이 걸린 현관은 모두에게 명예의 전당이 되고 있다.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학교

1983년 설립인가를 받고 1984년 개교, 2018년 2월 제32회 졸업식을 거행하며 총 1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창원중앙고등학교. 사람 나이로 치면 한창 꿈을 펼칠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학교의 역사 속에는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여느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학교의 역사를 이끌어 갔지만, 이제 모든 학생들이 3년 동안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며 또 다른 학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창원중앙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누구나 갖게 되는 것, ‘나만의 포트폴리오’이다. 입학 전 이틀 간 운영되는 ‘예비 신입생 학교’에서 받게 되는 커다란 파일에 3년 동안 자신의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 가게 되는 것이다.

‘예비 신입생 학교’에서 적성검사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행사활동에 따른 「계획-과정-결과」의 기록을 모두 포트폴리오에 남긴다. 처음엔 텅 비어 있던 파일은 3년 후 빼곡하게 가득 차 두꺼워지는데, 이 결과물은 학생생활기

록부와의 연결된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모든 역사가 담긴 이 포트폴리오는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다양한 활동 중 단연 주목할 만한 것은 ‘유네스코 학교’ 운영이다. 2016년 선정된 창원중앙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수준이 높고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관심도 높아서 교사 연수율 68%를 달성하기도 했다. 교과 활동은 물론 동아리나 봉사 활동, 진로 교육과도 연결되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것을 교육과정에 적용시키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4개 관점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ESD)과 ‘사회봉사, 다문화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을 위한 철저한 지도와 관리는 교사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자신만의 수업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 수업부터 학생 활동 지도까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타 교과 교사들과도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을 공유하며 더 좋은 방향을 위한 노력을 이어 오고 있다. 그 결과 창원중앙고등학교

의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경남은 물론 전국 곳곳에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전문학습공동체로 완성하는 체계적인 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는 2018년을 맞아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학교 시설 공사 시행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부서 신설로 내실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의 이름은 ‘PLC(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즉 ‘전문학습공동체부’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담당 교사들이 담당하는 PLC부는 창원중앙고등학교만의 체계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개설되었





다. 학교 업무라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대한 교과 연구와 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신설 부서인 PLC부의 운영이다.

PLC부는 지금까지 주 2회 실시해 오던 회의와 함께 교과별 교수·학습 평가 계획 회의를 주재하고 매년 4월 열리는 수업 나눔 축제를 운영, 전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각종 연수에 대한 내용 공유, 수업 개선 방법 연구 및 지원 등을 실시하며 그야말로 학교의 가장 핵심인 ‘수업’의 시스템을 완성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창원중앙고등학교는 2018학년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와 공학융합 중점학교로 지정되었으며, 교육부 해피에듀 프로그램에 초청받아 전문학습공동체 교육과정 선도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료’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는 수업 환경 변화와도 연계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들에게 수업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개개인의 역량 강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강영호 교장의 생각이다. 교사가 잘 가르치는 것만이 수업 개선이 아니라 좋은 수업의 완

성을 위한 교실 환경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해 전 교실 칠판을 스크린으로 교체하고 단초점 빔을 설치했다. ‘스틱 피시’라는 USB를 전 교사에게 지급, 수업 자료를 모두 그 안에 저장해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USB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식의 가르침을 넘어 함께 정보를 찾고 문제를 분석하며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진짜 ‘수업 개선’이란 이렇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모든 과정과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물론 학교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2013년부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 운영되면서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과감한 도전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큰 계기가 되었다. 일반 고등학교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도입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알뜰히 운영해 온 5년의 시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지정이란 결과로 돌아왔다. 지난 5년은 자공고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창원중앙고등학교만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와 동시에 일반 고등학교에도 보급을 해 나가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의 장점들이 ‘단절’ 되지 않기를

창원중앙고등학교 교장실에는 특별한 책장이 있다. 언뜻 보기엔 책이 진열된 평범한 모습이지만 앞에 보이는 진열장을 열면 또 다른 책이 보관되어 있는 수납장이 나온다. 2015년 부임해 3년 동안의 모든 자료를 이 책장에 보관해 두었다는 강영호 교장은 자신의 후임자에게 이 책들을 그대로 물려줄 계획이다. 학교의 소중한 재산과도 같은 자료와 시스템들을 좀 더 눈여겨보고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후임자에게 이 책자와 자료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 만들어진 창원중앙 고등학교만의 시스템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부임하면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에 바쁜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는데, 단점은 당연히 고치고 보완하는 것이 맞지만 좋은 것이 있다면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우리 학교만의 시스템이 단절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더욱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년 후면 창원중앙고등학교를 떠나야 하는 강영호 교장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당부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은 꼭 이 학교 한 곳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입시에만 매달려 흔히들 말하는 ‘인 서울’이나 대학 이름에만 전전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10년 후 모습을 내다보는 교육을 위해 시스템과 능력을 갖춰 가는 학교. 진정한 ‘미래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경남**

양산중학교 책쓰기 동아리

나도 작가



김보리
양산중학교 교사



2017년, 사서교사로서 나의 목표는 ‘아이들과 책을 만들어 보자’였다. 양산중학교 특성을 간략히 말하면 경상남도 양산시 구도심에 위치한 7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서 665명의 남학생이 재학 중이다. 2017년 경상남도교육청 행복학교로 지정되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바탕으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역 환경여건상 학생들의 문화·체험활동의 참여 기회가 적으며 대부분 학생이 역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런 특성을 파악하여 도교육청 학생 책 쓰기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덜컥 교육부 지정 책 쓰기 동아리가 되었다. 부담 반 기대 반으로 동아리 아이들을 선발하고 차근차근 진행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글 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고 소재 선정부터 어려워했다. 글쓰기 가장 편한 방법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내용이라 알려주며 소재 및 주제 선정의 폭을 늘려주었다. 소소한 인터뷰지를 작성하여 자기 이야기를 쉽게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친구에게 또는 선생님께 나의 이야

기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니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동아리 운영 전, 나름대로 학생 지도의 원칙을 세웠다. 모든 활동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사는 수업보다 조언과 관찰을 주로 한다. 교사는 동아리의 한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적극적으로 돕는 멘토로 지도 조언한다. 이러한 원칙을 정하고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글을 쓰도록 하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샘솟았다. 1차, 2차 원고 작성 후 글의 흐름, 방향만 지도해주었고 아이들 스스로 편집장이 되어 교정, 교열 작업까지 직접 하도록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바쁜 학사일정으로 아이들이 원고를 완성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방과 후, 심지어 여름방학까지 반납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 20명이었던 동아리 구성원들이 10명만 남아있는 상황에 부딪혔지만 달콤한 간식을 제공하고 서로 다독이며 책 쓰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완성된 원고는 자가 출판 사이트를 이용하여 책으로 출판했고 각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도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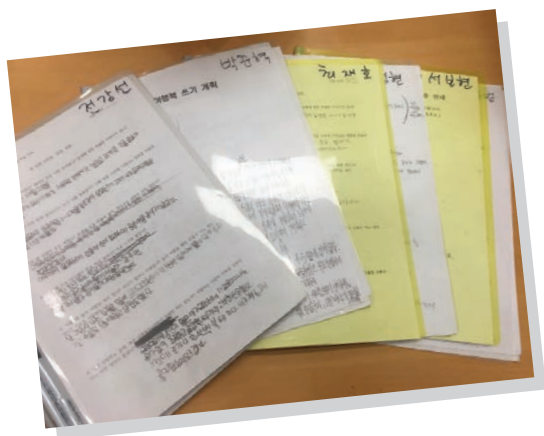


했다. 책을 집필한 학생
저자, 친구들, 부모님, 교
장, 교감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을 모시고 출판
기념회도 가졌다. 작가와
의 만남, 축하공연, 작가
가 직접 책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 누구나 저자
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미운우리새끼,
날다!’, ‘여행이란 즈름 짜다’, ‘애늬은이’ 총 3권의 책을 출판했다. ‘미운우리새
끼 날다!’는 10대 남학생들의 상상과 경험을 담은 책으로 히어로, 장난, 가족,
꿈, 성장 등 다양한 이야기를 묶은 단편집이다. 허무맹랑하지만 유쾌하고 발랄
한 남학생들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여행이란 즈름 짜다’는 남학
생들의 여행일기로 제주도 여행, 수학여행, 문학기행, 첫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이다. 제주도 여행은 아픈 역사와 여행지를 연결지어 보고 깨달은 점을
담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속한 수학여행, 문학기행으로 친구들과의 우정, 재미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또 첫 해외여행으로 느끼게 된 감정과 가족
의 소중함을 나누고자했다. 서툴지만 각기 다른 여행을 통해 보고, 깨닫고, 경
험을 나누는 책이다. ‘애늬은이’는 10대 남학생의 성장을 담은 책으로 주인공
은 부모님의 이혼, 주거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키워나간다. 힘
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
용을 담았다.

자신이 쓴 글들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책이 출판되기까지 모든 과
정에 참여를 한 아이들은 창작의 기쁨은 물론 내면의 아픔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짧은 시간 때문에 글의 내용은 한

없이 미흡하지만 아이들이 빼곡히 써내려간 글을 통해 꺾꺾 눌러 담아왔던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나의 마음 한켠에도 뿌듯함이 피어오른다. 나의 마음을 울린 ‘애늬은이’의 저자 제덕(필명) 학생의 소감문 일부분을 발췌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시간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쓰기 전 여름, 나는 그 때 자살을 하려고 배낭여행을 계획했던 적이 있었다. 손목을 긋고 목을 매달아 봐도 살기위한 발버둥을 쳐서 언제나 살아남았던 내 자신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자살명소에서 뛰어 내리려고 했던 것이다. 손목과 목의 주저흔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즈음 나는 내 자신이 죽기 싫어하는 겁쟁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늘 그랬다. 계획을 잡

으면 엄청 크게 잡았다. 나 자신은 정작 그 계획의 반도 못 채우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항상 흉터를 가리기 바빴다. 손목에는 팔찌를, 목에는 BB크림을 바르고 학교로 갔다. 그렇게 배낭여행을 빌미로 하는 자살명소 찾아가기 프로젝트의 막을 올리기 전 나는 사서선생님의 추천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어차피 죽는 인생 뭐하나 정도 남기고 싶었을까. 흔쾌히 수락을 하고 나는 오랜만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들을 노트에 쓰기 시작했다. 나의 과거에 대해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자살명소 찾아가기 프로젝트를 나의 옛날 가족들 찾아가기 프로젝트로 바꾸었다. 그 때부터 반 친구들에게서 잘생겨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항상 눈이 풀려있고 힘이 없어 보이던 내 눈이 초롱초롱하고 밝게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말이다. 칭찬을 듣기 시작하자 자살하려고 하던 나의 삶을 점점 잊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니 자꾸만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공부였다. 공부를 열심히 해 반 친구들, 선생님, 우리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200명 중에 150등을 했던 내가 목표를 잡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니 40등까지 등수가 올라가 있었다. 덕분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되었고 내 이미지도 대충 사는 사람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가끔씩 학원을 안 다니는 반 친구가 같이 공부하러 가자고 물어볼 때도 있다. 인생의 첫 성공을 맛본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나란 존재는 하면 되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며 얼른 사서 선생님이 쓰라고 했던 책을 완벽히 써내고 싶었다. 사전에 준비해둔 나의 옛날 가족들 찾아가기 프로젝트를 방학에 실천해서 책에 쓸 얘기들을 많이 얻고, 세상은 아직 살만 하구나, 나란 존재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를 깨달았다.

시간은 정말 대단한 만병통치약 인 것 같다. 절대 치료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자살하고 싶은 병이 지금은 완벽히 나아서 책을 쓰고 있다. 이제 나는 나의 3번째 목표인 경희대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중 3 밖에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남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고 그 만큼 헛되지 않은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틀린 게 아니었다. 그저 남들과 달랐던 것 뿐이지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lovelyri@korea.kr

행복한 바깥놀이 인성교육

| 창원한별유치원 |



—
송유현
창원한별유치원 교사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뜻한다. 유아들이 유치원 생활에서 행복한 순간은 가지각색이겠지만 그림책과 바깥놀이 활동은 단연코 유아들이 아주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일 것이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그림책과 바깥놀이는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었고, 이에 ‘행복한 바깥놀이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 행복한 바깥놀이 인성교육은 생활주제에 따라 선정된 그림책을 읽고 유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바깥놀이를 연계하여 유아들의 바른 인성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이다.





유아들은 언제 가장 즐거워하는가?

“선생님! 바깥놀이 언제가요?” 아이들에게서 종종 듣는 이 질문은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바깥놀이 시간입니다. 준비해 주세요.”라는 교사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와, 바깥놀이 간다~”며 환호성을 지르고 들썩이며 좋아하였다. 바깥놀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을 활짝 열게 한다.

행복한 바깥놀이 인성교육은 바깥놀이를 가기 전 다함께 교사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보고, 하고 싶은 바깥놀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로 시작한다.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바깥놀이, 변형하거나 확장된 놀이, 새롭게 만들어 낸 놀이 등 다양한 생각을 쏟아냈다.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생각한 바깥놀이를 펼치려 나가는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즐겁다.

또 유아들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는데, 특히 바깥놀이를 통해 협력, 배려, 나눔 등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놀이하듯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에 대한 배려나 공감하는 마음도 배운다. 이러한 예쁜 마음의 씨앗을 키우는 과정 또한 유아기 때 느끼는 배움의 즐거움은 아닐까.

그림책으로 바깥놀이 인성교육이 가능한가?

어린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유아들은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 되어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감적 이해의 자세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인성과 관련된 그림책을 활용하여

바깥놀이는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 자연물 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공존적 삶의 태도와 실천능력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통합교육이다.

유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그림책은 유아로 하여금 자아존중감, 자아조절능력, 감정이입, 유아들 간의 협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매체이고 지도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인성교육은 유아들의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더욱더 효과적이다. 교사의 의도적인 문학적 접근을 통해 인성덕목이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바깥놀이 활동을 경험하고 놀이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직접 부딪쳐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한 실천위주의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의 덕목인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깥놀이는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 자연물 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공존적 삶의 태도와 실천능력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통합교육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깥놀이는 유아들의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된다.

유아기 인성교육은 농부가 텃밭에 씨앗을 심어 가꾸어 결실을 맺는 과정처럼 교사의 지속적인 정성과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부터 우리 유치원에서 적용한 그림책을 활용한 바깥놀이 인성 수업 모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인성씨앗을 심어요

끌어내기 단계에서의 활동으로 인성에 대한 사전 경험 및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읽어주고 회상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림책 내용에 대해 유아들과 회상하는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인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바깥놀이 활동을 찾아내어 새로운 바깥놀이 활동으로 제안하여 끌어낸다. 이때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지켜야 할 지침으로 그림책에서 놀이를 찾아내어 바깥놀이활동으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의 생각을 듣고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야 한다. 유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교사의 태도를 통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고 좋은 인성 씨앗을 가지게 된다.



인성씨앗을 가꾸어요

펼치기 단계에서의 활동으로 그림책에서 찾아 여러 가지 바깥놀이 활동에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놀이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놀이에 참여하거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놀이의 안내자 역할도 함께 한다.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어울려 놀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깥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이다.

이때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지켜야 할 지침으로 놀이상황에서 또래와의 갈등상황이 일어났을 때 유아 스스로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역할을 병행하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들이 갈등상황이나 문제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여 인성적인 맥락에서 격



려하고 칭찬하여야 한다. 갈등이나 문제상황에서 긍정적인 해결경험을 통해 유아들은 또래와 좋은 사회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인성열매를 맺어요

돌아보기 단계의 활동으로 바깥놀이 활동에 대해 토의 중심의 평가 반성으로 그림책에서 찾은 인성덕목들이 내면화 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정한 인성 약속은 잘 지켜졌는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등 유아들과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아들의 바른 인성이 습관화 되어 일상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놀이는 자발적일 때 그 속에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낀다. 교사들이 인성수업과정이나 유아들과 약속된 활동들을 다 마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교사는 유아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제공하면서 자연 속에서 유아들 스스로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바깥놀이는 유아와 자연, 아이와 또래 간의 만남을 눈 여겨보고 귀 담아 듣는 교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지도해야 한다.

syh2794@hanmail.net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 갈육초등학교 |



최철원

갈육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오늘 아침달리기 하나요?”

“선생님 오늘은 밖에서 체육수업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오늘은 마스크 써야 해요?”

매일 아침이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듣는 질문이다. 예전 같았으면 하늘이 뿌옇든 맑든 신경 쓰지 않고 뛰어 놀았던 아이들에게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면서 깨끗한 공기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미세먼지 대응 교육 참 쉽다?

2016학년도부터 시작한 미세먼지 대응 선도학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거라서 경상남도교육청도 학교에서도 별다른 정보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에 따른 미세먼지 깃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직원 연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또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식물을 찾아 교실 내 공기정화 식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먼지 대응 교육이 단순 지식전달방법이었고 특정 시기에만 집중하여 운영되다 보니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미세먼지 대응 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느끼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가까이 있는 화력발전소와 공장 및 산업단지, 학교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른 채 우리만의 관심사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었다.

교육과정으로 들어온 미세먼지 대응 교육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하고 느끼는 환경 교육을 위해 2017학년도 2년차 선도학교부터는 미세먼지 인식 전환, 미세먼지 교육자료 활용 및 홍보 관리 강화, 미세먼지 대응 환경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는 미세먼지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리 학교는 하동 갈사만에 위치해 있는 탓에 학교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광양제철소와 광양국가산업단지, 동쪽으로는 하동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대형트럭의 운행이 많고 그로 인해 먼지 및 분진의 발생이 많은 편이다. 학교 중앙 현관에서 바라보면 화력과 공장의 높은 굴뚝에서 하루 종일 뿌연 연기를 내뿜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를 마시는 게 일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교생이 참가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하였고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교육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초록동지’라는 학생동아리 조직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미세먼지에 대해 탐구하고 미세먼지의 심각성 및 대처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조금씩 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지난 11월에는 미세먼지 주제탐구 발표대회를 열었다. 3~6학년 18명을 4개 모둠으로 나눠 자신들이 발표할 주제를 선정하였다. 미세먼지의 위험성 및 피해사례, 미세먼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사용 생활화, 공기정화 식물조사라는 큰 틀을 정하였고 발표를 위한 자료수집, 발표 자료 제작 및 방법을 모둠마다 특색 있게 정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과 요청에 조언을 하는 수준에서만 지도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해야 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올려 붙였으며 인터뷰, 홈쇼핑, 뉴스, 상황극 같은 역할 놀이를 통해 발표를 하였다. 학생들끼리 모여 의논하고 제작하고 발표연습을 하다 보니 교사가 지도하는 것보다 미세먼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클린 공간 만들기

미세먼지 대응 선도학 운영에 이어 ‘2017학년도 경남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시범 사업(실내체육시설조성)’에도 선정되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평균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실외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실내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냈고 우리 학교에 필요한 실내체육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기존의 방

과후교실로 활용하던 공간을 정리하여 새단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2월에 갈육초등학교만의 관점과 철학으로 실내체육시설 개념을 새롭게 해석한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학교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한 공모를 통해 ‘라운누리(즐거운세상)실’이라고 교실 이름을 정하였고, ‘라운누리실’에서는 체육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과목의 신체활동과 방과후교실, 예술강사지원(무용) 수업이 이뤄지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게 됐다. ‘라운누리실’은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방진망, 미세먼지 측정기 및 알림전광판, 물걸레청소기 등 다양한 미세먼지저감 장치를 갖췄으며, 전면거울, 안전쿠션 및 매트로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지난 두 달간 라운누리실을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추운 겨울 날씨와 나쁜 미세먼지 농도 탓에 실외 활동이 어려웠지만 라운누리실 덕분에 따뜻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공간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의 관심이 깨끗한 공기를 만든다

겨울방학을 앞둔 며칠 전에는 미세먼지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스크착용 생활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학교 인근 마을주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며 올바른 착용법을 알리고, 우리들



의 10가지 약속에 스티커를 붙이며 맑은 하늘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하였다. 또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No Fine dust)후드티를 입고, ‘미세먼지, 황사 없는 맑은 하늘이 그리워요’ 라는 우리의 소망을 알리기 위해 카드섹션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하였다. 30개의 작은 그림과 글자가 모여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습을 많이 하였



다. 항공촬영을 위해 드론을 띄웠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순서에 맞게 카드를 들기 위해 호흡을 맞췄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 학생, 교사 할 것 없이 좋아하면서 열싸안던 기억이 지금 생각해도 신이 난다.

갈육의 ‘베스트 마스크 착용자’로 불리는 6학년 학생들은 미세먼지 예방 캠페인 및 마스크생활화 알리기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이번 퍼포먼스에서도 앞장서서 이끌었다. 후배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시범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동참해달라고 하였다.

지난 2년간 미세먼지 대응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 및 대처능력, 예방 및 실천습관에 대한 방법을 가정 및 지역사회에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세먼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문화를 만드는 미세먼지대응교육 선도학교답게,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 마스크 착용 확대와 대중화, 깨끗한 하늘 만들기 개선노력 등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깨끗한 환경 지키기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라본다.

cw0070@naver.com

행복으로 더불어 크는 학교

| 함안여자중학교 |



김남희

함안여자중학교 교사



‘행복학교’, ‘유네스코학교’,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국제청소년포상제운영기관’, ‘배움중심수업 나눔 중심학교’ 함안여자중학교를 가리키는 말들은 많다. 그만큼 알차고 멋진 열정들로 가득 찬 학교라는 반증일 것이다. 벅차고 설레며 그동안 함께 지내왔던 행복 함안여중의 사계절을 여기에 풀어놓는다.

행복학교 행복한 진화 중!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아침맞이로, 선생님들과의 다정한 포옹과 함께 사



랑을 꽃피우는 ‘사랑데이’로 함안여자중학교의 교문은 늘 정다운 인사로 가득하다. 학급에서는 미처 아침을 못 먹고 온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과 함께 하는 국밥데이’, 칭찬릴레이, 회복적 신뢰서클 등 저마다 특색 있는 학급특색활동이 이어진다.

또한 4주간 진행된 <지역 나눔 행복 프로젝트>, 국어·사회 융합수업인 <독도 프로젝트>, 과학·기술가정·사회·수학 주제통합수업인 <내가 살고 싶은 삶의 터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배움중심수업의 열기가 뜨겁다.

거기에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모여 공청회를 통해 생활규



정을 제개정하고, 투표로 올해 하복을 생활교복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합창제와 학교 축제에서 학부모와 함께 공연을 즐기고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힘을 보태며 지역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교육의 주체로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학교는 행복한 진화 중이다.

와글와글,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차다

총 11학급. 전교생 271명의 비교적 작은 규모인 함안여자중학교의 동아리는 20여개가 넘는다. 이들 동아리의 특징은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부원들을 모집하여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은 3월 한 달 동안 신중하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홍보를 하고, 12월에는 전교생이 모여 동아리 발표회를 한다. 동아리 시간을 매주 2시간으로 늘려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을 만큼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들 중 주1회 동아리 시간 외에도 연중 모여 왕성하게 활동하는 자율동아리만도 12개나 된다. 창의수학, 넷볼, 국제청소년성취포상동아리, 연극 등 이들

자율동아리들은 대내외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남교육박람회를 비롯하여 제주도, 양산 등지에서 수학 부스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동아리 자체적으로 1주일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한 교내 작은 수학 체험전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의 중요한 행사마다 오프닝무대를 도맡아 댄스 공연을 선보이고, 교내 독서행사를 기획한다. 방송부와 UCC부는 경남교육영상공모전에서 2년 연속 입상했으며, 비즈쿨 창업동아리는 재능기부자들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비즈마켓

을 개최했다. 특히 텃밭을 통해 직접 재배한 작물들로 푸르미장을 운영하고 사랑의 김장을 담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환경동아리는 학생들에게 무척 인기가 많으며 전국대회에서 1~3위를 도맡아 하는 넷볼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이렇듯 학교는 살아 움직이는 아이들의 소리들로 늘 들썩들썩 신명난다.



예술로 피어나는 학교

예향(藝鄕)으로 이름난 함안에 위치하는 학교답게 예술의 향기가 곳곳에 가득하다. 축제 때 뮤지컬을 공연하기도 하고, 해마다 연극제를 실시한다. 특히 작년에는 지역극단과 연계하여 연극제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여름 방학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하여 '제1회 아라가야 청소년작은연극제'에 당당히 피날레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학기별 2회 이상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 예술 공연 전교생 참여 및 애니메이션과 디자인 예술 프로그램 외에도 사제동행 경주 자전거문화유적투어를 통해 문화를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호연지기를 기르고 있다.

이중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합창제로, 여중생들만의 맑고 고운 화음으로 아름다운 화합의 장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는 함안문화원 대공연장에서 교장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 교사합창단, 학부모 난타 공연 등을 선보였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2016.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장려, 2017. 자유학기제 동아리 최우수, 2017.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교사수기 최우수, 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 장려 등 함안여자중학교는 자유학기 우수학교로 널리 인정받았다. 수업개선은 물론이고 리더십 캠프(2일), 창의비전 캠프(2박 3일), 스킨스쿠버, 승마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을 비롯, 올해는 함안군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8주 동안 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복한 진로스케치>를 각각 1, 2학기로 확대 실시한다.

이제는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학년제로 새롭게 도약하며 진정한 교육개혁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숨은 천사들

함안여자중학교에는 매우 특별한 숨은 천사들이 있다. 바로 ‘사랑모아 봉사단’이 그 주역이다. 2013년 5명의 어머니와 함안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딸들로 처음 모인 사랑모아 봉사단은 어느 새 4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노인요양센터 등을 통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함안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부천사도 있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무려 1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졸업한 이후로도 계속 후원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한층 더 펼칠 수 있었다. 이러한 나눔의 기부천사들로 세상은 보다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이다.

eurdoll@naver.com



지구촌 수업, 그레잇!

| 밀성제일고등학교 |



—
신현구

밀성제일고등학교 교사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경험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경험과 체험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새로운 경험은 책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진 활동이며 한창 보고 배우고 느껴야 할 청소년 시기에는 더욱더 중요한 활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학교 안 교실속에서만 간혀 학창시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인성 및 창의



성을 강조하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교육청, 시도단위 지자체,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각종 청소년 단체 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이어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청소년 교류사업, 해외 봉사활동,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등으로 해외체험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다.

밀성제일고등학교는 해외체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체험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공문 등으로 접수된 체험단 모집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고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해외 문화체험, 해외 봉사활동,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와 활동계획서 작성, 면접 등 많은 준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최종합격 후 체험·봉사·문화교류 활동을 통하여 견문이 넓어질 뿐 아니라 단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과 인성교육의 효과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체험 후에 체험기를 작성하여 느끼고 경험한 여러 가지 기억들을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나라에 13명의 학생이 다녀왔으며, 2016년에는 몽골,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9명, 2017



년에는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었던 체험활동지역을 넓혀 미국,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 14개국에 27명의 학생이 해외문화체험(탐방), 해외봉사활동,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다양한 교육활동 여건이 잘 조성된 큰 도시의 학교에서는 보잘 것 없는 숫자일 수 있지만 10만 인구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생각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이다. 특히 그 중에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7학년도에는 국가 간 청소년 국제교류 우수과견단으로 선정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 최우수상과 우수상,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 우수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장려상을 수상하여 개인과 학교의



명예를 높였으며,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진정한 봉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미담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최근의 해외체험활동을 토대로 ‘밀성제일인의 세계여행 그레이트!’이라는 해외 문화 체험기를 책으로 발간하고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보급하여 학생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생생한 체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축제 때 해외문화체험 사진들을 전시하여 생생한 체험의 현장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2017년 해외체험 · 국가 간 문화교류 · 해외봉사자							
이탈리아	2명	동티모르	1명	캄보디아	2명	베트남	2명
인도	1명	모로코	1명	부루나이	1명	불가리아	2명
일본	6명	몽골	4명	중국	2명	아제르바이잔	1명
미국	1명	네팔	1명	(총 14개국 27명)			

해외 문화체험은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다. 빠듯한 학사일정과 일과운영으로 힘든 시기의 고등학생이 시간을 낭비해가며 해외체험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교사의 진로설계에 의존하여 살아온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하고,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야말로 ‘나의 진로’를 찾는 소중한 경험일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주관,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제 문화적 소양과 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성장할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과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좋은 해외체험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학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하고,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야말로
‘나의 진로’를 찾는 소중한 경험일 것이다.

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학창시절과 체험활동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tlsgusrn@hanmail.net



남해여중 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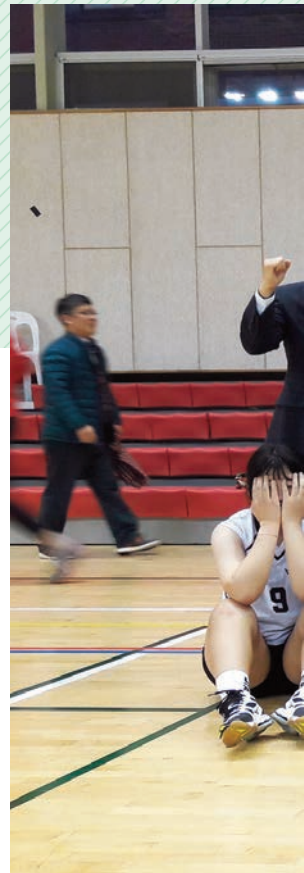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우승

- 스포츠를 '즐기는' 아이들이 이뤄낸 역전 드라마 -



박경희

남해여자중학교 교사



남해여자중학교는 '제11회 교육감배학교스포츠클럽대회(김해 삼계초등학교, 2017.9.8.~9.9.)'에서 여중부 배구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라북도배구협회가 주관한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전주교육대학교, 2017.11.18.~11.19.)'에서 여중부 배구 우승을 차지하였다.

앞서 열린 '제11회 교육감배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



었다. 남해여자중학교 배구부는 슬로건에 걸맞게 평소에도 서로를 믿고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임하였고, 그것이 대회 우승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남해여자중학교 배구부는 초반 부진을 딛고 거창 혜성여중에 2대 1의 역전 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지난해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하며 흘렸던 눈물을 만회할 수 있었다.

도내 교육감배 우승으로 출전하게 된 전국대회 우승도 쉽진 않았다.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전국 도 대표 여자중학교 17개팀이 참가해 평소 같고 닦은 배구 실력을 겨루는 무대였다. 이날 예선전에서

“

우리 학교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친구들과 후배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13명의 선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에
몰입해 왔기 때문이다.

”



울산 구영중 2대 0, 충북 원봉중 2대 0, 준준결 군산진포중 2대 0, 준결
경기도 이천사동중 2대 0 등 예선전 전 경기를 1세트도 내주지 않고 결
승까지 진출하며 힘찬 기세를 이어가던 남해여중 배구부는 결승전에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결승에서 전남 장흥여중을 만나 마지막 세트에
서 뒤지고 있던 남해여중 배구부는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고, 3대 2로
역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남해여자중학교 배구는 학생 개개인이 갖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이번 우승으로 2013년, 2014년, 2016년



에 이은 네 번째 우승을 한 남해여중 배구부가 전국 최강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주장 한민지(3학년) 학생은 “우리 학교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친구들과 후배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13명의 선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에 몰입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민지 학생의 말처럼, 남해여자중학교 배구부는 자발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피나는 연습을 이어



왔고 특히 여름방학 동안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에 임하는 등 자발적으로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 결국 역전 드라마를 펼칠 수 있었다.

강경선 교장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승의 쾌거를 이뤄낸 자랑스런 남해의 보물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더불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남해교육지원청과 남해군체육회에 감사한다.”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하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를 통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해여자중학교 배구부는 전국대회 우승에도 자만하지 않고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최강 여중 배구팀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2018년 전국 대회 우승도 노리고 있다. 고학년 학생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소통하는 가운데, 선후배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자발적 참여, 열정이 결합하여 여전히 최상의 팀워크를 선보이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탄한 실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올해 우승 역시 자신하고 있다.

2018년 우승을 이끌 다음 주장 김지나(2학년) 학생은 “남해여자중학교 배구부의 다섯 번째 우승을 위해 겨울 방학 때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매일 방과 후에 남아 연습을 하고 있다. 언더패스, 공격, 수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탄력을 높이기 위해 배구뿐만 아니라 줄넘기 등을 이용해 기초체력 또한 다지고 있다.”라고 현재 배구부의 연습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우리 배구부는 다른 배구부 보다 월등한 단합력과 파이팅 넘치는 응원이 장점이므로 이를 활용해 우승의 기운을 계속 해서 이어나가겠다.” 라는 당찬 각오를 비치기도 했다.

남해여자중학교는 2017년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 선도학교’, ‘우수학교스포츠클럽’으로 활동한 데 이어, 2018년에도 ‘우수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지속해 나가며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역시 활발히 운영하여 학생들이 꿈을 가꾸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pkh3635@naver.com

| 배움중심 교사수업 국외 교류 연수 후기 |

일본



진영학
감계초등학교 교사



2018년은 행운으로 시작되었다. 경남교육청이 1월 22일부터 25일(3박 4일)까지 일본 현지에 보내는 ‘배움중심 교사수업 교류 연수단’(총 29명)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수 준비를 하면서 해외 여행이라든가 떠나는 것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미리 검색하여 메모해 두었고,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책 두 권까지 챙기는 등 연수와 여행의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모두 거두려고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연수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나



서도 연수단 전체 협의와 조별 협의를 통해 다음 날 일정과 해야 할 일을 정해야 하는 매우 힘든 연수였다. 연수생 모두 연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힘을 연수에만 쏟을 수밖에 없었다.

연수 목적은 실질적인 배움중심수업에 관한 일본과의 수업교류 내용을 전달하고 배움중심수업의 현장 적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수업을 교류하고 더불어 문화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연수단은 일본의 교육기관으로 메이지대학교,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 하마노고소학교, 타마가와대학교 교육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특히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와 하마노고소학교는 이번 연수에서 수업을 교류한 학교로서, 여기서는 연수의 핵심 일정인 두 학교의 탐방과 수업 교류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연수 첫째 날, 폭설이 내려 도쿄 도심에서는 20cm가 넘는 적설량이 기록되었다. 우산을 써도 옷깃에는 눈이 쌓였고 예상치 못한 눈에 신발은 젖었다. 사 년 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 도쿄 시내의 교통상황이 악화되어 버스가 오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를 찾아갔다. 학생 등교 시각은 10시 30분으로 늦춰졌고, 계획보다 방문 일정이 100분 정도 줄어들어 아쉬움이 매우 컸다.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는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교육연구의 산실로서 최고의 교사가 가르치고 최고의 학생이 공부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일본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집필자로 활동한다.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차 추천, 2차 시험, 3차 추천이라는 3단계 전형

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의 자랑거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첫째, 철저한 교사 연수, 교육 실습, 해외 교사 연수단 활동 등 초등교육 이론의 최첨단 학교이다. 둘째, 4학년 말 하와이 일주일 체류교육(현재는 희망자만 참가)과 해외 여러 기관과의 수업 기술 교류 및 연구 활동으로 세계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셋째, 스쿠바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특별지원교육을 실시한다.

내가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에서 갖게 된 느낌 또는 인상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이 학교는 일본의 최고 학교라는 자부심에 비해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초라해 보였다. 복도 곳곳의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사물함과 책걸상도 낡았다. 학교 시설이 열악한 것은 교육 분야의 예산이 매우 적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었고, 일본 학교 시설의 대부분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이 반바지 차림의 교복을 입고 지나가고 있었다. 교실의 온도가 높지 않은데도 학생들이 겉옷을 벗고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앉아 있는 모습에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다. 끝으로 학교 방

문을 마칠 때까지 학생들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다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에서는 경남 측 2명의 교사와 일본 측 2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김수미 선생님(진주 금산초)은 일본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과정의 국어과 ‘시’ 수업, 그리고 조지원 선생님(거창 창동초)은 일본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과정의 수학과 ‘원’ 수업을 하였다.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의 아오야마 선생님은 2학년 국어과 ‘시’ 수업, 그리고 모리모토 선생님은 4학년 수학과 ‘분수’ 수업을 하였다.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에서 일본 수업을 참관하면서 관찰한 것과 수업 협의회를 통해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일본 수업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 수업은 학습을 위한 기초·기본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수업 흐름에 따라 정교하게 발문하였고, 이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없이 발표하였다. 칠판과 공책을 활용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장 활용을 강조하다가 최근 수업 트렌드가 바뀌면서 판서와 공책 활용이 점

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계속해서 판서와 공책 활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아오야마 선생님과 모리모토 선생님의 판서는 군더더기 없고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었다. 일본 교사의 판서와 학생의 공책을 보면서 수업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업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판서와 공책 활용을 제대로 해야 배움을 위한 수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일본 수업은 학생의 사고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국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시인의 생각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시인의 생각이 담긴 부분은 가린 채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이 문제를 만들어봄으로써 계속 사고하게 하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 흐름은 학생 활동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사가 발문과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생의 사고를 끊임없이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학생은 학습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되어 있었다. 교사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학생의 답이 틀리거나 실수가 있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학생 스스로 찾아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친구의 실수에 대해 비웃거나 질타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연수 셋째 날, 연수 일정 중 가장 기대한 하마노고소학교를 방문하는 날이 되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두 시간 가까이 버스로 이동하여 학교에 도착했다. 하마노고소학교는 1998년 카나가와현 차기사키시 교육위원회에 의해 배움의 공동체 최초의 파일럿 스쿨(pilot school)로 개교하였으며, 사토 마나부 교수가 주도하는 배움의 공동체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이다.

하마노고소학교 노가미 미즈코 교장 선생님은 학교 창학 이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배우고 자랍니다. 그

리고 저는 당신과 잇닿은 많은 사람과 함께 배우고 자랍니다. 당신하고 저, 그리고 당신들과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배웁니다. 그게 하마노고소학교의 소원입니다.’ 학교 교육목표는 ‘서로 위하기, 서로 듣고 귀 기울이기, 서로 배우기’라고 하였으며, 학교 경영의 기반으로 동료성 구축과 자율성 수립을 강조하였다. 학교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한 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업을 참관하거나 학교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이후 일본 수업 참관 및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마노고소학교를 둘러보면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발견되었다. 하마노고소학교는 두 교실이 문 없이 통하는 소위 ‘열린교실’ 구조이다. 옆 교실이 시끄러우면 이웃 교실의 수업에 방해가 되므로 수업 분위기가 차분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의자 밑에 매달려 있는 안전모는 지진 대피 훈련이 생활화되어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학교 밖에서 본 외벽은 흡사 곰팡이가 핀 것처럼 검정색 때가 많이 끼어 있었다.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의 낡은 시설이 떠올라서 하마노고소학교의 낡은 학교 시설을 그대로 두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역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대답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학교 시설 및 환경은 학부모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하마노고소학교에서는 와기자카 선생님이 6학년을 대상으로 사회 수업을 하였다. 수업 내용은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것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첫 차시에 해당되었다. 교사의 주요 발문에 대해 학생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칠판에 판서하며 정리하였다. 수업의 핵





심질문은 다음과 같다. ‘세계 최대의 방파제가 만들어진 카마이시는 위험한 곳인가요?, 후쿠시마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제방이 있었으면 견뎌냈을까요?, 무너진 방파제를 다시 복원한다면 높이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주민들은 왜 방파제를 같은 높이로 만드는 것에 찬성했을까요?’ 이와 같은 핵심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자

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수업을 마친 후 입장이 바뀌면 수정하기도 한다. 수업을 참관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사회 공책이다. 학생 한 명의 사회 공책 두께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책 열 권을 합한 것과 비슷했다. 또한 학생들은 토의·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말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어느 한 친구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견이라도 부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 말하는 모습과 이를 존중하는 수업 태도에도 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최근 몇 년간의 배움중심수업에 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의 수업은 문화적으로 한 가지 관점에만 얽매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업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았다. 일본 현에서의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수업 나눔과 관찰, 그리고 수업 협의를 통해 양국 간 교실수업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수업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경남의 배움중심 교사수업 교류 연수

단이 일본 현지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업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보는 것은 문서나 영상을 통한 이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스쿠바대학부속소학교와 하마노고소학교는 수업 과정안을 연수단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마노고소학교 노가미 미츠코 교장 선생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하마노고소학교의 선생님들은 수업자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문서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본교의 선생님을 믿습니다.”

비록 짧은 국외 연수였지만, 일본 수업에 관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연수단의 많은 선생님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경남-일본 간의 수업 교류 연수를 통해 배움중심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경남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jin6093@gmail.com



| 해외교육탐방 후기 |

북유럽



—
김성준
아라초등학교 교사



탐방을 시작하며

작년 9월 페이스북을 통해 ‘2018 황선준 박사와 함께하는 5기 북유럽 교육탐방’ 모집 정보를 보자마자 바로 신청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북유럽교육과 그 지역의 문화를 직접 접해보고 싶었다. 1월 20일, 전국에서 모인 23명의 초중등 선생님들과 함께 7박 9일의 일정을 시작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덴마크 교육

- 프레네학교(FREINETSKOLE)

1976년에 설립되어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레네학교는 공동 결정과 자기 책임 원칙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었다. 학교에 들어선 우리들을 맞이한 것은 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와 안내를 담당하는 6학년 학생들, 탐방객을 취재하러 온 지역방송국 관계자들이었다.

우리는 안내자역할을 맡은 학생들을 따라 학교 시설을 둘러보았다. 학교 공

간은 크지는 않았지만 목공실, 공예실, 밴드실 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실들이 있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따뜻하면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졌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개인 학습, 팀별 활동, 토론, 놀이 등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프레네학교는 0학년부터 9학년까지 그룹을 지어 무학년제 형태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상급생과 하급생 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

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준다고 했

다. 내용에 따라서는 또래 친구

끼리 모여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래 친구끼리

모이는 시간은 저학년에

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저학년에서는

여러 연령층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길

러나가고 고학년이 되어서는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해 협력성

을 키워나간다.



프레네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였는데 공동 결정과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학교 교육목표와도 관련이 깊었다.

첫째, 한 주를 시작할 때 학생들이 직접 주간 활동을 계획한다.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주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 스스로 관심이 있는 주제로 의논하여 시간표를 작성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해 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에세이로 프로젝트를 정리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준다.

둘째,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한 주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 학생 스스로 평가

한다. 학생들이 주초에 정한 목표에 대해서 직접 수행도를 평가하여 기록하고 담당교사는 그것을 보고 피드백 해 주는 방식이었다. 매주 기록되는 학생들의 활동 내용이 누가기록 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 물론 평가 기준은 포트폴리오 앞에 명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하였다.

덴마크에는 0학년부터 9학년까지 10년 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가 아닌 다양한 방식(자유학교, 사립학교, 홈스쿨링 등)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하는 역할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입을 한다.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은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과목별 시수 등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교과서 역시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교사들이 직접 선택하여 수업에 활용한다. 이는 국가가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주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에프터스콜레 (S.E.S:SportsEfterskolen Sjælsølund)

덴마크에만 있는 특수한 학교 형태인 에프터스콜레는 1952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원래 취지는 농촌에 있는 농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었는데, 이후 농촌에 있는 학생들과 도시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범위를 확대시켰고 지금은 전국 250여개의 에프터스콜레가 생겨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교로 발전하였다. 초창기 에프터스콜레는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현재에는 스포츠, 음악, 회화 등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영역이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에프터스콜레 교육기간은 1년으로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대상이며 입학하고자 하는 동기과 관심분야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덴마크 학생들 중 20%정도 에프터스콜레를 경험한다.

우리가 방문한 S.E.S.는 스포츠 중심의 에프터스콜레였는데 스포츠, 일반교양, 기본소양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스포츠 교육은 주로 오후에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을 마음껏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교양 교육은 주로 오전에 이뤄지며 기본적인 이수과목(국어, 영어, 수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본소양 교육은 1년 동안의 기숙생활 속에서 협력과 책임감, 타협, 올바른 가치와 행동을 배운다. 닐슨 교장은 에프터스콜레의 1년이 사회생활 7년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였다. 에프터스콜레는 무상으로 운영되는 교육은 아니다. 가정형편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1년 학비 치고는 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S.에서 만난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학습이 강한 스웨덴 교육

공유, 배려, 존중, 민주주의 정신을 스웨덴 교육의 4대 가치라고 한다. 그리고 스웨덴은 프로젝트 학습이 강한 나라라고 한다. 스웨덴 교육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나는 교육이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팀 단위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를 배우게 되고 자신이 알고 배운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 것이다.

- 지자체 중앙위원회(SKL)

SKL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익단체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290개의 지방자치단체와 도차원의 20개 자치단체가 모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주로 하는 일은 노조와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해 지자체를 대신하여 노사협약을 하는 것이었다. 또한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와 컨설팅, 회원들의 발전(역량강화)을 위한 연구도 그들이 하는 일 중 하나이다. 스웨덴은 교육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져 있어 교육 연구와 지원도 지자체의 몫이다. 지자체가 회원으로 있고 연구와 지원 등의 역할 등에 있어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연구와 분석, 협상을 하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SKL은 지자체 안의 모든 학교들을 서로 비교·분석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중퇴 예방 프로그램, 학교 내 효과적인 시간 활용(행정처리 시간 등)과 할 일에 대한 프로젝트를 통한 개선점 찾기, 교장 리더쉽 강화, 이민자와 정치난민 교육, 과학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한다. 학교 현장에 대한 연구와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각 시도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과 비슷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기관임은 확실했다.

- 미르쉐학교(Myrsjöskolan)

우리가 방문한 미르쉐학교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수업을 1년에 2회 정도 한다. 프로젝트 수업은 교과 간 통합수업 형태로 이뤄지는데 여기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팀 단위로 구성되어 수업을 기획하는데 각 교과 교사들이 모여 통합수업을 계획하고 각 교과가 프로젝트 수업에서 적용할 요소를

추출하여 자연스럽게 교과내용들이 연계될 수 있

도록 한다. 예를 들어 목공을 프로젝트 주제로

한다면 자연과학시간에 ‘나무’에 대

한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

고 난 후, 수학시간에 치수재거나

단위를 학습하고 미술시간에 팀

별로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스케

치하여 목공 수업을 통해 결과물

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웨덴 학생들의 장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 자신감,

창조성, 협동성과 함께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점점 확





대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수업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웨덴에서 눈여겨 볼 것은 예산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였다. 스웨덴의 학교예산은 우리

와 다르게 학교 예산 총액제로 해당 학교의 학생 수에 비례하여 예산 총액이 통째로 학교에 내려보내진다. 그렇다보니 많은 학생이 있는 학교는 보다 많은 예산을 받게 되고 그로인해 더 많은 교사들을 채용하거나 교육 활동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는 반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예산이 적게 배분되어 교사 채용 및 교육 활동의 제한을 받게 되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현재 스웨덴 교육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학교 예산 총액을 통해 예산 집행권을 학교에게 부여함으로써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스웨덴 학교 예산의 감사 방식은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 우선 정기 감사 자체가 없다고 했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인데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해질 경우 지자체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고, 그럴 경우 감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와 교사를 통제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졌다.

미르쉐학교를 나설 때 밝은 얼굴로 우리를 배웅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스웨덴 교육의 네 가지 가치를 떠올려 보았다. 학교가 좋고, 학교에 와서 즐겁게 배우는 것만으로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들이 부러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평등한 핀란드 교육

핀란드의 학제는 기본 교육과정(7~16세, 9년), 상급 중등학교(3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으로 구성되어있는 고등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또한 핀란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과정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며 종합학교를 이수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소정의 장학지원혜택(유자 등)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GNP의 약 6.5%정도를 공공 교육부분에 지출하고 있는 공교육이 강한 나라이다. 이는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핀란드교육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올라리 중·고등학교(Olari School)

올라리 학교는 헬싱키 외곽에 위치한 학교로 중·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학교이다. 올라리 중학교는 수학과 과학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는 학교로 입학 당시 수학·과학의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 총 6개 반 중에서 4개 반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학생들을 배정하고 나머지 2개 반은 수학·과학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외부 지역의 학생들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모든 교사들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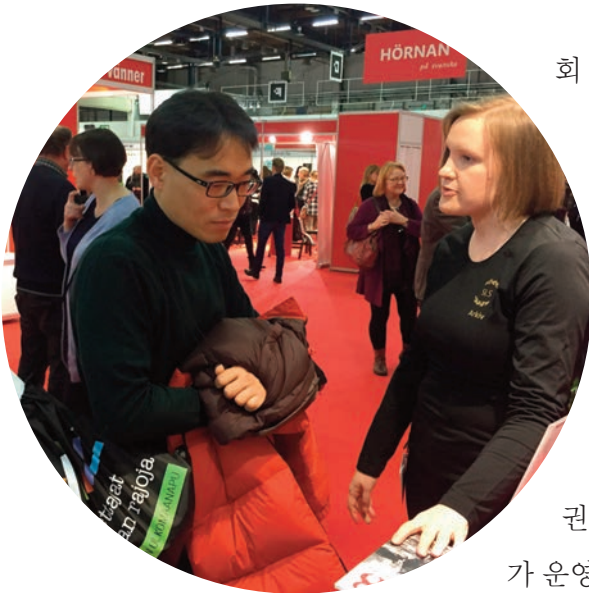
우리가 참관한 수학수업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었는데, 자유롭게 차분한 분위기였다.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2~3명이 그룹을 이뤄 서로 협업하기도 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학에서 단순 연산력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엿보였다.

- 핀란드 교육 박람회(EDUCA)

북유럽교육탐방의 마지막 일정은 핀란드 교육박람회였다. 운이 좋게 이번 탐방기간과 박람





회 개최 일정이 맞았기에 방문이 가능했다. 박람회장을 들어서는데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경남교육박람회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유아교육에서부터 직업, 생태, 기아, 봉사, 환경, 인권, 공예, IT 등 다양한 분야의 부스가 운영 중이었고 교육과 관련한 첨단기기 및 기자재 등도 전시하고 있었다.

1918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 부스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핀란드가 1917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후, 내전으로 인한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리는 부스였다. 핀란드에서의 교육 박람회는 자신들의 교육 활동과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공간이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인권, 기아, 봉사, 전쟁 등과 같이 인류 문명의 어두운 면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위한 활동도 교육이 해야 할 역할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만을 교육의 범주로 보고 있는 우리와는 교육의 범주와 역할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탐방을 마치며

덴마크를 시작으로 스웨덴, 핀란드의 여러 교육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세 나라의 공통점을 말한다면 ‘공간’과 ‘왜’에 대한 고민, 교육 주체 간에 깊은 ‘신뢰’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을 단순히 학생들이 머무르고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보기 보다는 각각의 공간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이며, 그 공간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활동과 생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이 불편하지 않는 것이 아

나라 자신들로 인해 언제라도 바뀌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때, 학생들은 그 공간이 자신들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마음껏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이번 탐방에서 둘러본 북유럽 학교들은 교사와 학생, 교사와 관리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었다. 이는 학교 안에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교육청 등의 기관과의 관계로 확장시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예산 총액제 및 감사제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공간’과 ‘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북유럽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은 교육 주체 간 깊은 ‘신뢰’라는 생각이 들었다.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학생, 교사, 관리자, 학부모 사이의 신뢰, 사회적·정치적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차분하게 공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번 탐방에서의 가장 큰 소득은 교육주체 간 깊은 ‘신뢰’가 교육 혁신의 가장 큰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앞으로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되었다.

koke007@hanmail.net



2018년 도의회 운영 및 조례 제·개정 바로 알기



이지연

경남도교육청정책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주무관

1 지방자치 행정의 꽃 지방의회

우리나라「헌법」제11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은 선거를 통해서 일정 수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는 의결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분리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기관 대립형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의회의 권한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기금의 설치·운용, 기채 발행 동의·청원 등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의결권이 있으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행정사무감사(도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제2차 정례회 시 14일 이내 실시) 및 행정사무조사(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실시한다. 의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권한으로 임시회의 소집 및 회기 결정, 위원회 구성,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의원 발의 등 자율권이 있다.

의회의 주요 역할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조례 제·개정 절차,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정·개정·폐지된 조례를 소개함으로써 의회 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심의

현대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 절차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상설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경남도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고등학교 학교군 관련 고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운영한다.



△ 왼쪽부터 이병희 이상철 옥영문(부위원장) 김지수 서종길 하선영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박준의원

교육위원회는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과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가족의 바람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활동 상황과 위원 소개, 위원 연락처는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교육위원회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다. 현재「지방자치법」제59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에 교육전문위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전문위원은 교육청에서 파견된 5급 1명과 6급 1명, 7급 1명, 도청 직원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의회법무담당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근무하며 대의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춘 입법 활동

지방의회는「헌법」제117조에 따라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에게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조례안 작성 및 제출권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새로운 입법이 요구되는 경우와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를 제때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제·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제·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입법 예고문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획서에 포함된 입법 예고문은「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재한다.

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각종 첨부 서류(비용 추계서, 재원조달 방안, 부패영향 평가 등)를 포함하여 입안을 마련하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법제심의안을 최종적으로 확



△ 제35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 활동

제출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되며, 해당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에 이송한다.

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확정된 입안은 법제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심의위원회는 의안의 타당성 및 법적합성 유무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안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본회의 개의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되며, 해당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송된 의안에 대해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공포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 후 「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된 의안>

의안 번호	제출 연월일	제 출 자	의 안 명	의결 연월일	의결 결과	비고
865	2017.11.24.	이규상 의원 외 17명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체육건강과)	2018.1.31.	원안	2차 본회의
866	2017.11.24.	이규상 의원 외 17명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체육건강과)	2018.1.31.	원안	
882	2018.1.5.	교육감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관부서: 재정과)	2018.1.31.	원안	
883	2018.1.5.	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관부서: 중등교육과)	2018.1.31.	원안	
884	2018.1.5.	교육감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학교지원과)	2018.1.31.	원안	
885	2018.1.5.	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관부서: 정책기획관)	2018.1.31.	원안	
890	2018.1.17.	옥영문 의원 외 9명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창의인재과)	2018.1.31.	원안	
891	2018.1.17.	이상철 의원 외 14명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관부서: 재정과)	2018.1.31.	원안	
892	2018.1.17.	한영애 의원 외 9명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학교혁신과)	2018.1.31.	원안	

4 입법 활동 결과 달라지는 정책 · 서비스

이상에서 지방 의회의 권한과 역할 및 조례 제 · 개정 절차,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정 · 개정 · 폐지된 조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올해 첫 회기인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9건의 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이 ‘면제’된다. 대상 학교는 공립 113교, 사립 78교(단,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각종학

2018년도 연간 회기 일정(안)

회기 운영 계획: 총9회, 121일

- 정례회(65일 이내): 2회, 56일(1차 17일, 2차 39일)
- 임시회(회별 15일 이내): 7회, 65일

월별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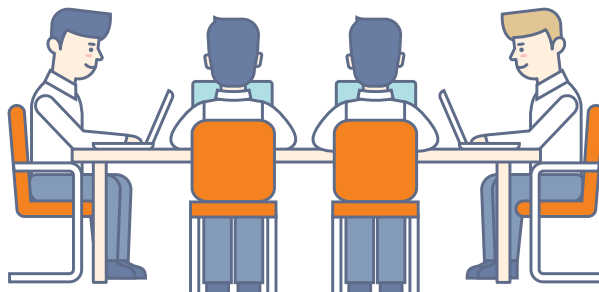
월별	회기별	회 기	주 요 처 리 안 건	비 고
1월	제350회	1.24(수)~1.31(수) <8일간>	· 2018년도 새해인사(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상임위원)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3월	제351회	3.6(화)~ 3.15(목) <10일간>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4월	제352회	4.10(화)~4.20(금) <11일간>	· 도정에 대한 질문 · 조례안 등 일반안건	
6월	제353회	6.19(화)~6.26(화) <8일간>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7월	제354회	7.5(목)~7.9(월) <5일간>	·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및 개원식 - 의장·부의장 선거, 개원식 - 상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	
	제355회	7.12(목)~7.26(목) <15일간>	· 주요업무보고(도지사, 교육감) - 주요업무계획 보고(상임위원) · 추경예산안(도청, 교육청)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9월	제356회	9.4(화)~9.20(목) <17일간>	· 도정에 대한 질문 ·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정례회
10월	제357회	10.11(목)~10.18(목) <8일간>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11월 ~ 12월	제358회	11.6(화)~12.14(금) <39일간>	· 행정사무감사 · 도정에 대한 질문 · 2018년도 결산추경예산안 ·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정례회

교 제외)가 해당되며, 약 31,500명의 도내 고등학생 대상 연간 약 4억 원의 학부모 부담이 해소될 예정이다. 또한「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2019학년도부터 거제지역 일반고(자공고)에 대해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며,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2018. 3. 1.자로 양산시 범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되고 밀양시 상동면 상동중학교가 폐지된다.

경상남도의회 2018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9회 121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제10대 도의원 임기가 6월 30일 만료되고 7월에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예정되어 정례회는 각각 9월, 11월에 개의회 예정이다. 의원들의 서면질문이나 도정질문에 필요한 자료 및 통계자료 제출 요구는 도민이 선출한 도의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교직원들의 신중한 자료 작성이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숫자·산출 단위 등의 검증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도민들에게 열려 있다.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관 신청이 가능하며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회의는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지원과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ptjy99@korea.kr



봄 이야기

2018. Spring story EDUCATION GYEONGNAM

| 여유와 멋 |

160

내 아내의 모든 것

윤창욱 |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사

| 아이좋아 갤러리 |

169

아드리아해변의 오후

류차현 | 경남예술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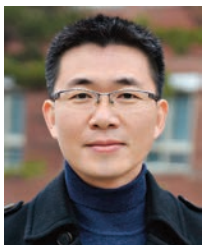


내 아내의 모든 것

- 아내,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 -

감독 민규동 주연 임수정 이선균 류승룡
한국, 2012년

EDUCATION
GYEONGNAM



윤창욱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사

언젠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그림 중 <연인> 연작을 본 적이 있다. 어둡고 질푸른 색조 속에서 천으로 얼굴을 가린 연인들이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꽤 흥미로웠다. 왜 그들은 얼굴을 가린 채 입맞춤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들에게 사랑이란 단지 맹목에 불과했기 때문일까? 더불어 그들의 모습이 사랑에 빠진 우리의 은유였다면, 우리의 사랑 또한 한낱 눈먼 것에 불과한 것일까? 그래서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에게서 각기 다른 환상을 보는 것일 뿐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는 이의 진짜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옆에 앉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림에 대한 상념 때문인지 어느 곁에 그녀의 얼굴도 낮설어져 있었다. 불현듯 궁금해졌다. 내가 아는 그녀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그녀였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내가 그러하듯 아내 또한 내가 모르는 술한 내면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그리트의 얼굴을 가린 연인들처럼, 정작 중요한 것들을 감추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보면 익숙하다는 것과 잘 안다는 것 역시 별개의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오래보았으니까 막연히 상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에 나타난 두현과 정인의 모습이 그러했다.

소진된 사랑



두현과 정인은 7년 전 일본 나고야에서 처음 만났다. 지진의 공포를 겪은 뒤 핸드폰 진동 소리에도 기겁하며 탁자 밑으로 숨는 정인과 내진 설계가 전공인 두현. 어쩌면 이들은 우연한 만남부터 필연이었던 지도 모른다. 두현은 지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녀를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내진 설계사가 아내를 위해 지은 집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정인이 또 다시 핸드폰 소리에 놀라 탁자 밑으로 숨자 그녀를 보며 말한다. “저기요, 제가 밥 사 줄게요. 이런 미인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날부터 이들은 연인이 된다. 함께 나고야 성을 거닐고 선샤인 사카에 관람차에서 키스를 한다. 100일이 지나고 200일, 300일에 이르기까지 공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입맞춤하는 이들은 영락없이 사랑에 눈먼 사람들이다. 그래서 둘은 결혼하게 된다.

하지만 7년 후, 많은 것이 변했다. 사랑스럽던 정인은 매사가 불만 투성이인 투덜이가 되어 있었다. 부스스한 머리칼에 신문배달원과 소리치며 싸우는 그녀. 집안 아무데서나 옷을 훌렁훌렁 벗고 다니며 주스를 만들던 손으로는 엉덩이를 긁는 그녀. 그런 그녀가 두현은 지



겨워졌다. 그래서 그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조차 탈출을 꿈꾼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다면서도 그가 이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내가 무섭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강릉으로 내려간 두현은 옆집 남자가 전설의 카사노바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에게 정인을 유혹해 그녀 스스로 자기 곁을 떠나가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른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대단히 코믹하고 유쾌해 웃음을 멈출 수 없지만 정작 두현은 무척 심각하다.

문득 궁금해졌다. 아름답던 그녀는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 단지 세월이 흘렀기 때문일까? 아니면 연애 기간 동안 그녀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일까? 두현도 말하지 않았던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처음 그녀는 조용했고, 수줍어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때는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구요.” 그의 말이 맞다면, 조용하고 사랑스럽던 그녀의 모습은 일본어를 배우던 초기의 내숭에 불과했던 셈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정말 맞는 것일까?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녀의 변화가 단지 일본어 또는 내숭 때문이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게으른 분석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두현은 정인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들, 예컨대 그녀의 깊은 상처나 좌절된 욕망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신빙성 없는 화자다. 그렇다면 그녀가 변한 이유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과연 그녀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그녀의 숨겨진 상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상처와 도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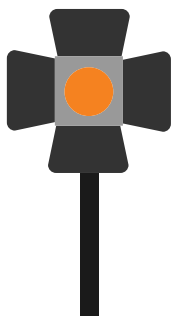


정인은 결혼 전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된 적이 있었다. 자랑하고 싶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작품은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만다. ‘글쟁이 운명은 결국 이런 거다’ 싶었던 그녀는 원고를 태워버린 뒤 글쓰기마저 그만 두고 만다. 그러고는 두현과 결혼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또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함께 그동안 키워왔던 꿈도 용기도 결혼 생활 속에 모두 묻어버렸다. 그녀는 말했다. “아무튼 전, 노력만 하면 늘 실패예요.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렇게 7년이 나 지났구.”

의문스러웠다. 뭘 해도 안 되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더 이상의 실패도 상처도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꿈도 꾸지 않았던 대가로 그녀는 형짚인형, 버리고 싶은데 혹시 빠지면 다시 예뻐질까 해서 구석에 처박아 놓은 ‘구질구질한 형짚인형’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이 그녀가 원한 삶이었을까? 아닐 것이다. 사랑하고 결혼하는 대개의 이들이 그러하듯, 그녀 또한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이기를 바랐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왜 이처럼 처음의 바람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마도 그녀의 자기기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신춘문예 원고가 버려진 뒤 정인은 생각했다. 두현과 함께라면 그냥 다 관둬도 괜찮을 거라고. 이게 정말 그녀의 진심이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처럼 보였다. 우리도 종종 그러하듯, 계속된 노력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도피처로 그와의 결혼을 선택





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후 가정 속에 스스로를 가둔 결과 그녀는 잉여로서의 인간, ‘맨날 집에 처박혀 있고 남 험담이나 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녀의 우울과 상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렇다면 우울과 불화에서의 탈출도 자기기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그녀에게 다가온 성기와 두 번째 지진은 기만의 탈출구이자 깨달음의 장치가 된다.

지진, 그리고 성기와 지진



지진과 성기는 실재(實在)인 동시에 하나의 판타지다. 나아가 깨달음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가? 먼저 지진의 경우를 살펴보자. 작품 속에는 두 번의 지진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7년 전 정인이 요리 공부를 위해 나고야에 갔을 때다. 이때 정인은 거대한 고층건물마저 흔들리는 공포 속에서 운명처럼 두현을 만난다. 그리고 결혼하기에 이른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다. 정인은 매사에 당차고 용감한 여자다. 그런데 왜 하필 지진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큰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지진이 가진 상징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인은 작가의 꿈이 좌절되고 아이마저 생기지 않자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신의 꿈도 모두 포기해버렸다. 하지만 그토록 씩씩하던 그녀가 단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집에서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정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사건 외에도 남들이 모르는 무수히 많은 좌절들이 숨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좌절들은 결국 자신이 몸담은 세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깨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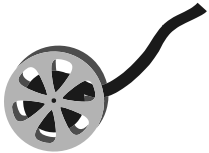
으로, 나아가 지진을 통해 땅이 흔들리는 두려움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이때 그녀가 느낀 두려움의 강도는 절망의 강도에 비례했을 것이다. 이후 그녀는 좌절된 욕망에 대한 보상이자 하나의 도피처로 두현을 만나고 결혼하기에 이르지 않았을까? 물론 7년간의 결혼 생활 또한 위태롭고 상처로 가득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말이다.

그런 그녀에게 성기가 나타난다. 그는 전설의 카사노바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여인도 유혹하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던 그는 두현으로부터 그녀가 좋아하는 책과 음악, 콤플렉스에서 정치 성향에 이르기까지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은 뒤 그녀를 유혹한다. 따라서 그의 유혹은 판타지의 성격을 떨 수밖에 없다. 그는 그녀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환상들을, 마치 우연인 듯 현실 속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인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 속에, 클래식한 영화요, 옛날 영화 속에 풍당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낱 허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 또한 상처를 가진 인간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정인의 깊은 상처를 알아 봐 주고 그녀의 숨은 아름다움도 일깨워주는 존재가 된다. 그가 그녀의 ‘잊고 있던 낡은 상자’를 열어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웃으니까 아름다우시네요. 본인이 이쁘다는 거 알고 있죠?” 더불어 그는 그녀의 독설이 어느 순간 세상도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단점이라 말했던 것이 사실은 그녀의 빛나는 매력이었음을 알려 준 것이다. 그 속에서 정인은 점차 자존감을 회복한다. 정인에게 꼭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물론 성기의 판타지는 오래가지 못한다. 질투에 눈먼 두현이 정인에게 자신이 성기를 고용한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녀가 받았던 모든 사랑이 사실은 하나의 거짓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 정인은 비로소 그의 비열함에 분노하게 된다. 그녀는 말했다. “고작 이런 사람이라 살았던 거야, 내가?”

바로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난다. 땅도 지금껏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겼던 두현이 지은 집도 모조리 흔들리는 것이다. 책과 병들이 떨어지고, 화분이 넘어져 깨어지는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깨닫는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가짜에 불과했음을,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 생각해왔던 가정이 사실은 허위와 감금의 공간이었음을. 따라서 이제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 그 어디에도 도피처가 없다면 굳이 숨을 필요 또한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새로운 설계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와 같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지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뻔한 결론이지만,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지금껏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모두 허구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그 관계를 끝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부부 관계와 관련지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까지의 관계가 마지못해 유지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허위로 채워져 있었다면 그와 같은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관계의 지속 불가능성이 반드시 이혼으로 귀결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 내진설계부터 다시 해서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는 성기의 말처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설계와 실천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정인과 두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새로운 부부 관계의 정립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끊임없는 대화의 회복이다. 정인은 말했듯 살다보면 말이 없어진다.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니깐 말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오해도 거기서부터 생긴다. 정인이 끝없이 먹거나 청소기를 돌린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외로웠으니까.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으니까. 따라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설계는 대화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려진 천 너머의 얼굴을 보려는 노력의 첫걸음이 될 테니까.

다른 하나는 서로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정인이 것처럼 지독한 유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기의 시선, 그녀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여자’로 대해 주는 바로 그 시선 때문이었다. 이처럼 시선은 힘이 세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 꿈꿀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할 정도로 말이다. 그녀가 자존감을 회복해 하나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모든 아내에게는 성기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닐까? 물론 그는 판타지 같은 존재다. 하지만 그런 그가 반드시 타인일 필요는 없지 않나? 남편 또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인식의 전환이다. 아내를 한 여자로 볼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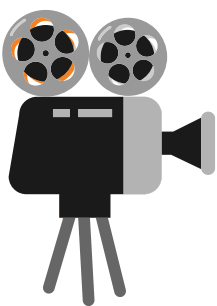


결국 이 영화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결혼과 함께 꿈꾸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영화였다. 한때 열렬히 사랑해 결혼했으나 어느새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 많은 부부들에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꿈꾸기의 기억마저 낯설어진 이들에게 사랑의 새로운 설계와 꿈꾸기는 언제나 가능하고 또 필요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잊고 있던 꿈과 용기를 찾으라는 것이 주부의 역할이 무의미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체로 나에게 주부란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같은 존재다. 그녀들의 희생을 자양분으로 자녀들은 자라고 가족들은 지치고 힘든 삶에서 포근함과 위안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러했듯 아내는 집안의 해다. 집은 오직 주부라는 아내가 있어 밝고 따뜻하고 빛난다.

다만 주부라는 것이 자기기만의 장치, 한 사람의 꿈과 욕망을 억압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인도 자신의 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아내,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내가 될 수 있지 않았나? 따라서 꿈꾸던 것의 실현과 아내 또는 주부로서의 역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니 혹시라도 닫아두었던 상자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열어볼 일이다. 너무 늦지 않게.

yuma321@hanmail.net





아드리아해변의 오후 90*120cm / Oil on canvas



류차현

경남예술고등학교 교사

- 제1회 개인전(경남문화예술회관)
- 제2회 개인전(바람흔적미술관)
- 경상남도 중등미술교육연구회장(2003~2007)

rch6103@naver.com



2018. 통권 212호
EDUCATION GYEONGNAM

봄 이야기

발행인 황선준
편집인 이희만
편집주간 오인태

편집위원회

백금선 (안민초등학교 교감)
구형량 (창원중앙고등학교 교사)
조지원 (창동초등학교 교사)
김영환 (산양중학교 교사)
서화영 (서창고등학교 교사)
신현석 (마산용마고등학교 교사)
이지만 (안골포초등학교 교사)
김진희 (화제초등학교 교사)
성진옥 (하동초등학교 교사)
박도영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구성작가)
송재윤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촬영감독)

인쇄일 2018.3.19.

발행일 2018.3.22.

발행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번길 20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www.gerii.go.kr



※ 본지에 실린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지 이야기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숲이 눈부신 것은
파릇파릇 새잎이 눈뜨기 때문이지
저렇게 언덕이 듬직한 것은
쑥쑥 새싹들이 키 커가기 때문이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도랑물이 생기를 찾는 것은
갓 깨어난 올챙이 송사리들이
졸래졸래 물속에 놀고 있기 때문이지
저렇듯 농삿집 트랙이 따뜻한 것은
갓 태어난 송아지, 강아지들이
울망줄망 봄볕에 몸 부비고 있기 때문이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새잎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새싹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다시 오월이 찾아오고
이렇게 세상이 사랑스러운 것은
올챙이 같은, 송사리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송아지 같은, 강아지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오인태, 『아버지의 집』에서



세대 공감

따사로운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와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여유로운 어느 일요일 오후
책읽기를 좋아하는 손녀의 손에 이끌려
별마당 도서관에 나온 할아버지
손녀와 함께 읽는 독서를 통해
세대를 잇는 독서 감정을 공유하나봅니다.



—
김태우
울하초등학교 교사

경남교육 쾌청!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로 숨쉬며
미래역량을 키워가는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이 앞장서겠습니다.

